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ClearPa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친한파 혼다 의원, 올해 선거 극히 어렵다

예비선거에서 칸나 후보에게 뒤져, 결선 힘겨운 싸움 될 듯
선거 자금 모금도 3분의 1 수준, 오바마 대통령 지지 철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의 주역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위기에 빠졌다. 올해 11월, 로 칸나 후보와 2014년에 이어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 혼다 의원은 선거자금부족, 하원 윤리위 조사 등의 악재가 겹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다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의원보좌진의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로 하원 윤리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혼다 의원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산호세 머큐리뉴스는 지난 3월 사설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혼다의원을 대신해 올해 39세인 친기업적 민주당 후보인 로 칸나를 공개적으로 지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지난 선거부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은밀하게 지원 하는 일본계들이 '혼다낙선 프로젝트' 까지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시

▶▶2면으로 계속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의 주역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가운데)이 11월 본선을 앞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웰슬리 한인 1백만불 횡령 실형 선고 받아

IT기업 인터시스템즈 회계 책임 임원
2년에 걸쳐 횡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웰슬리 거주 한인이 자신이 근무했던 케임브리지 소재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1백만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8개월 징역형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케임브리지 소재 회사 인터시스템즈에서 회계책임 임원으로 근무했던 앤디 김(44)씨는 지난 2014년 7월과 2015년 6월 각각 50만불씩 두 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앤디 김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지검에 따르면 앤디 김은 회사의 체크 어카운트에서 마치 회사 대표인 필립 레곤(Phillip Ragon)과 부인이자 부사장인 S 레곤 씨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매사추세츠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의 어카운트에 돈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성수기 출발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449**

에어캐나다항공 (토론토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1449.00는 에어캐나다 항공 요금으로 출발날짜에 제한이 있으며, 6월 30일까지 발권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의 사정,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고객서비스에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혼다 의원은 선거자금부족, 하원 윤리위 조사 등 악재

▶▶1면에 이어서

민참여센터 상임이사의 페이스북 포스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친한파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의 선거자금은 로 칸나 후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혼다의원은 2014년 초반에도 선거자금 모금에서 열세를 보였었다. 한인들은 혼다의원 살리기 운동에 나서 40만불의 기부금을 지원했었다.

11월 결선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지난 6월 7일 펼쳐진 예비선거에서 마이크 혼다 현 의원은 로 칸나 후보에게 패했다. 실리콘 벨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17지구 연방 하원 예비선거에서 혼다 의원은 33,608표, 38.1%의 득표율을 보여 33,785표로 38.3%를 기록한 로 칸나 후보에게 177표 차이로 예비선거 2위로 본선에 나간다.

지난 2014년 예비선거에서는 혼다의원이 48.2%의 지지를 받은 반면 로 칸나는 28%를 얻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11월 결선에서 혼다의원은 51.8%를 득표, 48.25%를 얻은 로 칸나 후보에게 간신히 앞서 8선에 성공했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마이크 혼다의 비서실장인 제니퍼 하이드씨가 잠을 못잔다.<중략> (로 칸나 후보도)같은 민주당적으로 도전을 했으니, 선거자금이 곧 당선이다. 주위에 있는 한인들에게 기부금을 권고해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미국서 일본군강제위안부 문제는 혼다의원을 살리는 일이 90%다. 모두들 직접 일본과 대결을 하려고 하지만, 미일관계로 볼 때엔 별 소용없다. 미국의 연방의원이 나서지 않고는 메아리도 없는 목소리 일뿐이다.” 라고 혼다 의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로 칸타 후보는 인도계 이민자 출신의 지적재산



인도계 이민자 출신의 지적재산권 변호사인 로 칸타 후보(가운데)는 스탠포드에서는 경제학을 산타 클라라 대학에서는 법을 가르쳤던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권 변호사로서 스탠포드에서는 경제학을 산타 클라라 대학에서는 법을 가르쳤던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뉴저지주 뉴악에서 자랐으며 신참 정치인지만 로컬, 주,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공무원직을 지낸 경험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냈다.

실리콘벨리의 기업들의 정서에 맞게 친 기업 중

도적 성향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야후,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벨리에 포진한 IT(정보기술) 업계로부터 집중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혼다의원이 반대하는 환태평양 무역협정(TPP)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2년에 걸쳐 100만불 횡령

앤디김 지난 12월 유죄 인정 18개월 징역형과 1년 집행유예

▶▶1면에 이어서

을 송금했다. 이후 그는 이 기록을 회사 공식 서류에 올렸었다. 2014년 자금은 자신의 계좌로 추후 송금했으며 2015 횡령금액은 부동산 회사에 투자했었다.

이 같은 그의 행위는 2015년 7월 다른 재정관련 직원이 이를 발견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는 곧바로 11년간 다녔던 이 회사에서 해고됐다.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인터시스템즈는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20여개국에 지사를 설립해두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인에 따르면 앤디 김은 올해 초께 한 동업자와 함께 한 한인 식당을 인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앤디김은 지난해 12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로부터 18개월동안의 징역형을 채우고 난 후 1년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룸렌트, 서블렛 가짜 체크 사기 또 기승

렌트 보증금보다 거액 수표 오면 사기 의심해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룸렌트 또는 서블렛 계약을 원한다며 거액의 가짜 체크를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라는 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매년 6월께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서블렛해야 하는 학생 또는 한인들의 상황을 이용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사기는 수년째 지속되며 여전히 정보에 어두운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 체크사기는 특히 보스턴코리아닷컴의 '서블렛' 광고를 올린 한인 및 한인 학생들을 상대로 방값 보증금을 내는 형태를 띤다. 최근 몇주 동안 이 사기범은 광고를 올린 학생 및 한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메일을 보내 사기행각을 시도하고 있다.

자신이 한인 2세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 사기범은 여러 이름으로 방을 구한다며 이메일 연락을 취한 후 상대방이 반응하면 거액의 가짜 체크를 보내고 소액을 송금하라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들었다.

특히 사기 메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기범이 Jennifer Kwon, Kyung

Park, Emalea Black, Hyo Soon Paker, Grace Lee, Tim Nguyen, Christina Park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접촉하며 한국계인 것처럼 위장한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룸메이트, 서블렛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이 사기범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기범은 전혀 굴하지 않고 지금껏 계속해서 희생자를 몰색하며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매달 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메일이 왔다는 내용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사기범은 자신의 인터넷 전화번호까지 주며 통화를 시도하는 등 점차 대범해 지고 있다.

특히 6월의 경우 방학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서블렛 및 룸렌트를 시도하는 한인 또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지금 시기는 이 사기범이 가장 활개를 치는 시간이다.

따라서 룸렌트나 서블렛 이메일을 받고 상대방이 더 많은 체크 금액을 보내오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 주지 않아야 한다. 체크를 받게되는 경우 먼저 은행에



지난 2013년 2월 샌드라 김이 이모 씨에게 보내온 가짜 체크

입금해 완전히 추심이 끝날 때까지 2-3일 기다려 정확한 입금 상태를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초과입금된 금액을 송금해도 늦지 않다.

지난 2013년 이경희 씨는 방 서블렛 보증금 3배에 가까운 금액 \$3,750을 체크로 받았다. 계속되는 초과금액 송금

독촉 문자에 충분히 추심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금액을 찾아 송금해 고스란히 2천불이 훨씬 넘는 손해를 보아야 했다. 당시 사기범이 사용한 이름은 샌드라 김이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원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경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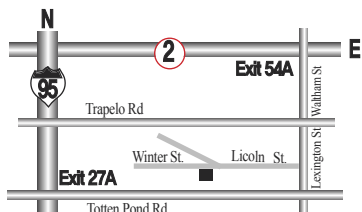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45대 회장단 출범

8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2016 한미과학기술산업학술대회(UKC 2016)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제 45대 회장단이 7월 1일 출범한다. 유재훈 회장을 포함한 22명의 임원진, 3명의 감사, 자문위원 등은 6월 18일 비엔나 소재 재미과기협 본부에서 신구회장 이임식과 출범식을 갖고 45대 KSEA "유재훈호"의 출항을 알렸다.

출범식에서 신임 회장단은 앞으로 1년간 각종 학술대회와 본부 및 지부행사, 협회 행정을 포함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혔다. 유재훈 신임회장은 "이민 1세대 회원들이 선진국에서 배운 과학기술 지식으로 모국이 산업발전의 기초를 닦는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2세대 과학기술자 리더들이 한.미간 상호협력의 기틀을 만드는데 주역이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라고 밝혔다.

45대 회장단의 출범 후 가장 큰 행사는 오는 8월 10-13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개최되는 2016 한미과학기술산업학술대회 (UKC2016)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과학기술을 통해 풍요로와지는 삶"으로 물리, 수학/통계 등 12개 분야의 심포지엄과 각종 포럼, 대규모 채용박람회, 포스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KSEA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UKC 2016는 올해가 18회째로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모인 과학기술자, 기업가, 과학기술전공 학생들이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인적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학술행사 이외에 텍사스 레인저스 구장에서 추신수 선수의 경기를 단체로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중 미래부 장관상과 과총과 공동으로 수여하는 해외과학기술인상, 차세대과학기술인상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되며, 박사과정 취득 5년 미만의 회원 가운데 선발된 "2016 젊은 과학기술자상" 수상자에게 1만 달러의 그랜트도 수여된다.

기조연설자로는 2011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브루스 버틀러 박사가 강연한다. 한미학술대회 최초로 과학기술자들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들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1971년 워싱턴 DC에서 한인 유학생 69명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제 45대 회장단이 7월 1일 출범한다


로 창설된 재미과기협은 45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초창기 한인 1세대에 이어 이제는 1.5세대, 2세대 한인과학기술자 회원들로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이번 45대 진영에는 다수의 2세대 과학기술자들이 임원으로 활동하며, 5000명 회원 가운데 선발된 45명의 평의원 가운데

서도 2세대 과학기술자들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UKC 2016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ukc.ks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보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수용지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정관장 오일젤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주문후 다들날 전에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토도 배송 해드립니다.

한인타운 복판서 한인, 강도와 총격전 사망

애틀랜타 인근 귀넷카운티 한인타운 둘루스 PC방, 업주 신씨는 현장에서 범인은 도주중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인 PC방 업주가 무장강도에 권총으로 맞서다 총격전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틀랜타 조선에 따르면 최근 한인타운에는 강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애틀랜타 인근 한인타운인 둘루스의 한 소풍몰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앤드루 신씨(52·던우드 거주)가 21일 자정께 자신의 업소 앞에서 무장강도와 서로 총격을 벌여 신씨와 강도범 둘 다 결국 사망했다.

신씨는 이날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둘루스 스티브레이놀즈 블러버드 선상 뉴코아 사핑몰 내 '타임 인터넷 카페'의 영업을 마친 뒤 부인 안모(53)씨와 함께 업소 문을 닫고 귀가하려는 순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이들 부부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강도행각을 시도했다.

이에 신씨가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들어 맞서려 했고, 결국 두 사람 간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총격상황이 발생하자 부인 안씨는 업소 앞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SUV 차량 뒤로 급히 몸을 숨겼지만, 업주 신씨는 강도가 쏜 총을 맞고 업소 앞 인도에 쓰러져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가 쏜 총에 맞은 강도범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타고 온 차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고, 범인의 부상 정도가 심하자 운전을 하던 여자 친구가 인근 맥도널드 주차장에 정차를 한 뒤 911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도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강도범의 신원은 스넬빌에 거주하는 디안테 도비(22)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의 여자 친구인 캔드라 게이트(22)를 무장강도 혐의로 체포해 귀넷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자세한 사건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현장 주변의 한 한인업주는 애틀랜타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을 닫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4-5발 정도의 총성이 울렸고 두려운 나머지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고 밝혔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는 주차장서 갱들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고 또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발각돼 다행히 저지된 사건도 있었다. 주변 치안 강화가 정말 시급하다” 고 전했다.

hsb@bostonkorea.com



총격전이 벌어진 PC방 앞 주차장(사진=애틀랜타 조선일보)

뉴햄프셔 한인회 참전용사 보은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7월 22일 보스카웬(Boscawen)에 소재한 주립 국군묘지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개최한다.

조은경 한인회장은 공문을 통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되었고,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3년이 되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현재 계시는 분들도 이제 80을 한참 넘겨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다.” 며 “노병들의 희생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기회를 여러 동포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 고 밝혔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했던 모든 장병도 초대한다. 행사 후에는 한인회에서 준비한 저녁을 제공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전달한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박선우고문 (603-767-1356)에게 하면된다.

일시: 2016년 7월 22일(금) 오후 3시30분

장소: NH State Veterans Cemetery Rte.3 Boscawen, NH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식

개교 41주년 졸업식 및 종강식 학예발표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6월 18일 개교 41주년 기념 졸업식과 종강식을 갖고 박준우 군을 비롯 15명의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박준우 학생이 총영사상, 김예진 학생이 학교장상, 이지호 학생이 이사장상, 이하늘 학생이 학부모회장상, 우진아 학생이 백린 장학상, 이하린 학생이 NE시민협회장상, 이재준 학생이 과기협회장상, 리오니 포스터 학생이 고대동문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양연희 김호중 김진우 학생을 비롯한 7명의 대학진학 졸업생들도 상장을 수여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 이광석 교육영사, 시민협회 이경태 회장, 과기협 이현희 회장, 박신영 NAKS-NE이사장, 오인식 나 의꿈국제재단 이사, 이태호 고대동문회장, 김기석 전 이사장과 이현주 학부모회장 등이 참여해 수상했다.

남일 교장은 졸업식에서 “이번 한 학년 동안에도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열심을 다 해준 졸업생 및 학부모님들을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환영인사를 대신했다.

김기석 전 이사장도 “그 동안 많은 것을 견디어 내고 이겨내고 이자리에 선 졸업생들이므로 앞으로 대학에 진학 후 사회에 나가서도 늘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외 이경태 시민협회회장, 박신영 이사장, 이태호 고대 동문회장 등도 축사를 전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토요일마다 한국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오

늘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미국에서 앞으로 코리아메리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차세대리더로서 성공하는 것이 효도이며 미국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사했다.

졸업생들이 졸업소감을 ‘아리랑’ 가사와 곡에 붙여 랩으로 발표하고 이종예 학부모가 졸업생 학부모를 대표하여 답사했다.

졸업식 후 시상식에서 이현주 학부모회장이 김정자, 박현아, 유정훈 교사에게 5년 근속표창을 수여했으며, 한국으로 타주로 이주하는 안은숙, 전미정, 안향선 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금강반 김태연 학생에게 2016 SAT한국어 최우수상을, 신민영, 황시원 교사에게는 교내교사훈련프로그램 이수증을, 류연지 교사에게는 2016차세대교사연수프로그램 수료증을 수여했다.

‘종강식의 꽃’으로 알려진 학예발표회 순서에서 이현주 학부모회장은 차기 학부모회장인 이미경 회장 소개에 이어 학부모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 이현희 과기협회장과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발행인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종강식의 꽃’인 학예발표회에서는 기초준비반인 병아리반부터 각 과정 반들은 노래 발표와 동시암송발표 및 해님반 달님반 한국무용 발표가 이어지자 자녀들의 발표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하는 학부모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특별히 전시된 미술반과 서예반의 작품전시회에서는 정성렬 지도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훈민정음체로 쓴 학생들의 붓글씨들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달님반 학생들이 학예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엄성준 총영사가 김태연(좌) 학생에게 2016 SAT 한국어 최우수상과 류연지(우) 교사에게 2016 차세대 교사 연수프로그램 수료증을 수여했다



학예 발표회에서 백제반 학생들의 공연 모습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9월 10일(신입생 개학) 및 9월 17일에 전교생 개학식을 갖는다. 가을학기 등록 및 학교 안내와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 교육 등 뿌리교육에 동참코자 하는 분은 홈

페이지 (www.ksneusa.org) 전화(508-523-5389) 또는 이메일 ksneusa@verizon.net로 연락을 바란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밀알한국학교 수료식 갖고 1년 회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챔스포드 소재 밀알한국교회 부속 밀
 알한국학교는 6월 19일 2015-16 학년
 도를 수료식을 갖고 지난 1년의 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며 회고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본 영상에
 흥부와 놀부 연극공연, 민속잔치, 글
 짓기 발표회 등의 교내행사의 모습, 또
 글짓기대회 및 말하기대회, 그림그리
 기대회 등 뉴잉글랜드협의회 주최 대
 회에서 수상 모습이 담겼다. 이외에도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의 일환인 붓글
 씨 실습, 철교종이접기, 동요 배우기,
 한국요리 실습, 영상수업, 미술활동, 과
 학활동수업 등의 다채로운 모습이 보
 여졌다.

이 날 영상을 본 한 학부모는 “1년
 동안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열심히 달
 려온 흔적이 잘 나타나 감동을 받았으
 며, 밝게 웃는 학생과 선생님들의 모습
 에서 선생님과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
 의 인성이 자라남을 느꼈다” 고 말했
 다.

밀알 한국학교는 학생들에게 수료
 증, 개근상과 숙제 잘한상을 수여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종강 선물 봉지와



밀알 한국학교는 학생들에게 수료증, 개근상과 숙제 잘한상을 수여했다

밀알한국학교 교지 <우리 글씨>를
 배부했다.

김현주 교장은 “올해의 표지그림 (
 승례문)은 미술활동 시간에 전체학생
 이 각자 맡은 부분의 조각그림을 그려
 서 합쳐 만든 작품이어서, 밀알한국학
 교의 협력과 통일성이 포함된 더욱 뜻
 깊은 그림” 이라며 특별함을 강조했다
 .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교지를 발
 행했다” 는 김현주 교장은 “밀알교지
 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뿌듯한 선물
 인 동시에 학교의 역사가 그대로 담긴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크고, 학생 저마
 다의 글씨체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후
 일 졸업생들에게 훌륭한 타임캡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꾸준히 만
 든다” 고 밝혔다.

수료식 후 여름방학에 들어간 밀알
 한국학교는 9월 첫째 주에 2016-17 학
 년도 가을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새 학
 기 등록은 8월부터 시작되며,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김현주교장 (678-516-
 4974 , hkimpw@yahoo.com)에게 문
 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밀알한국학교는 지난 6월 19일 2015-16 학년도를 수료식을 갖고 지난 1년의 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며 회고했다



아리아와 가곡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다

테너 줄리어스 안, 소프라노 강은희 콘서트

(보스톤 = 한미예술협회) 이상원
 = 성악가 줄리어스 안과 강은희 부
 부의 사랑노래 콘서트가 참석한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보
 스톤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
 가 지난 6월 17일 금요일 저녁 렉싱
 턴에 위치한 폴른 커뮤니티 교회
 에서 주최한 이 콘서트는 프랑스
 작곡가 레이날도 한의 아름다운
 가곡 <클로리스에게>로 시작됐다.

1부에서는 오페라 경험이 많은
 연주자들답게 샤프팡티에, 베르디
 , 푸치니 등이 작곡한 주옥같은 오
 페라 아리아들과 오페라 <라보엠>
 1막의 듀엣 씬이 연주되었고, 2부
 에서는 관객들에게 친근한 <포기
 와 베스>, <레미제라블>, <왕과 나
 >등의 뮤지컬에 나오는 아리아들
 과 2곡의 한국가곡 <신아리랑>과 <
 베틀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
 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듀
 엣곡 <Tonight>이 연주되었다.

줄리어스 안은 탄탄한 호흡과
 발성, 생생하고 진실된 표현과 뛰
 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 드라마틱한
 오페라 아리아에서는 힘이 있으면
 서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 기량
 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서정적인
 가곡에서는 가사의 뉘앙스를 잘
 표현한 환상적인 피아니시모로 청
 중의 탄성과 박수를 받았다.

강은희씨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이어지는
 레가토 창법을 잘 살려내어 전체
 적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음악을
 선사하였고, 두 곡의 한국가곡에
 서 그리운 우리의 정서를 물씬 느
 끼게 해 주었다.

이 날 반주는 뉴잉글랜드 컨서
 버토리에서 25년 이상 오페라를 가
 르치고 있는 티모시 스틸이 맡아
 마치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것
 처럼 표현의 폭이 넓고 깊이있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한미예술협회의 다음 콘서트는
 김소월의 시 <새벽>을 주제로 하여
 , 오는 9월 18일(일) 오후 4시에 케
 임브리지에 위치한 론지 음악학교
 의 피면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테너 줄리어스 안, 소프라노 강은희의 음악과 삶에 관한 인터뷰

동양인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프로페셔널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성악가가 미국내에서 동양인으로서 오페라가 가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 냈다.

성악가 부부로서 지난 17일 <사랑과 갈망의 노래>콘서트를 연주한 테너 줄리어스 안과 소프라노 강은희씨는 보스톤한미예술협회 홍보담당 임원이자 소프라노인 이상원 씨와의 음악과 삶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미국으로 이민 온 테너 줄리어스 안은 29세에 오페라와 클래식 성악을 접한 늦깎이 오페라 가수다. 그래서인지 성악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진지했다. 성악가로의 “지름길 또는 쉽게 도달하는 방법은 없다” 는 것이다.

줄리어스 안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를 졸업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캐나다, 영국의 오페라 및 뮤지컬 무대에서 좋은 활동을 펼쳐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한인 성악가다.

아내인 소프라노 강은희 씨도 노래란 단순한 소리가 아닌 가사 전달력이 정말 중하다고 공감한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접해 왔지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의 오페라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적했다.

강은희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후 안산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도미하여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로웰하우스 오페라, 커네티컷 콘서트 오페라, 보

스턴 릴릭 오페라 등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이다.

다음은 지난 6월 17일 보스턴 근교 렉싱턴에서 나눈 소프라노 이상원씨와의 인터뷰다. (편집자 주)

언제부터 어떻게 음악 공부를 시작했나? 성악가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는가?

강은희 (이하 강):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항상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 친숙한 환경이었다. 어렸을때 할머니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고, 유치부 때부터 성가대에서 계속 찬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노래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저의 최고의 팬이자 코치인 남편이다. 따끔하고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고 항상 응원해준다.

줄리어스 안 (이하 안): 저의 경우는 29살에야 비로소 오페라와 클래식 성악 음악을 접했다. 그 전에는 오페라 가수를 직업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와이 오페라단에서 합창을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오페라 스튜디오의 멤버가 되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해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으로 진학했다. 그곳에서 세계적인 테너 빈슨 콜을 만나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콜 선생님은 저에게 노래하는 방법 뿐 아니라 성악가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분의 영향이 제일 컸다.

미국에서 한국인 성악가로 무대에 서는 것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강: 다른 악기와 달리 성악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오페라나 가곡들은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외국어로 되어있다 보니 정말 그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충고이지만 연습실에서 소리만 위한 연습보다 가사를 읽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면 좋겠다.

안: 프로페셔널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한 사람의 모든 것, 문자 그대로 “모든 것” 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어떤 때는 내 속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듯한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때를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양인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직업이다.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름길 또는 쉽게 도달하는 방법은 없다” 는 것이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가사와 음악을 외우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한 역할을 소화하여 그 인물 자체가 된다는 것은 외운 것을 단순하게 재연하는 것과는 완전



성악가 줄리어스 안과 강은희 부부의 사랑노래 콘서트가 참석한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히 다르다. 가사의 의미와 발음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그 뉘앙스와 인플렉션(주: 말에 느낌이나 멋을 더하기 위하여 쓰는 기교, 고저, 강약, 긴장 및 이완 등)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오페라 가수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연기와 동작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강: 먼저 이번 듀오 콘서트는 저희 커플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게된 콘서트라 의미가 크다. 라보엠 1막의 마지막 씬을 같이 연주하면서 오페라 전체를 남편과 같이 연주하고 싶은 소망이자 목표가 생겼다.

안: 아내와 둘이서만 노래하는 음악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러한 형식이나 다른 종류의 음악회를 앞으로 더 많이 같이 하고 싶다. 저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 (웃음)

앞으로 공연은? 그리고 장래 계획과 꿈은?

강: 이번 가을에 유럽에 에이전트와 극장 오디션을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다. 부부가 성악을 하다 보니 특히 남편이 오페라 프로덕션마다 짧게는 3주에서 두 달까지 다른 주나 나라로 가는 일이 많은데, 같은 작품에 섭외 받아서 같이 공연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라보엠, 투란도트, 그리고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비부인 같은 작품들이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열심히 해야 한다.

안: 저는 오페라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피츠버그 오페라, 애틀랜타 오페라,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의 공연이 잡혀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은희와 함께 성악가로, 음악가로, 예술가로 성장하고 성공했으면 하고 세계 곳곳의 무대에 서는 것이다. 만약 아내와 함께 공연할 수 있다면 굉장한 보너스가 될 것이다. (웃음)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보스톤 다운타운 크로싱에 입점한 프리마켓은 저렴한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알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프리마크, 알뜰쇼핑족에게 인기

싼 가격, 세련된 디자인, 편리한 위치 삼박자 갖춰 지나치게 싼 가격, 윤리적 소비에 역행 지적도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작년 가을 보스톤 다운타운 크로싱에 입점한 프리마크(Primark)가 편리한 접근성과 세련된 디자인, 저렴한 가격으로 보스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운타운 크로싱의 메이시스(Macy's) 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지상 4층 규모의 프리마크는 여성복, 남성복, 유아복 및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다. 셔츠는 여성용 \$2.5~ 남성용 \$3.5~ 청바지 여성용 \$5~ 남성용 \$12~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양복의 경우에도 재킷 \$48, 구두 \$18로 저렴해 남성의 경우 \$100로 풀세트의 양복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들에게 선물해 줄 첫 양복을 사고자 왔다는 선 씨는 “나이 어린 아들에게 비싼 양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곳을 찾았다. 가격도 저렴해서 수선하는 것보다 더 싼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인 일본인 유학생 카나미 씨는 “일본 메이커인 유니클로와 비교하면 가격도 더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악세사리가 있어서 즐겁게 쇼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품질에 있어서는 유니클로가 조금 더 고급인 느낌이 나고 매장 방문 고객들이 이것저것 만져서 상품의 품질이나 정렬이 지저분한 느낌도 난다” 라고 말했다. 매장관계자는 “근처에 사무실과 대학들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귀가 길에 많이 찾는다. 특히 가격이 저렴해 제품을 한 번에 다량으로

사가는 고객이 많다” 고 귀띔했다.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프리마크지만 일각에서는 프리마크가 윤리적 소비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3년 7월에 벌어진 라벨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영국 웨일즈의 스완지에 위치한 프리마크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에 “지칠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강요받고 있다” 고 쓰인 라벨이 발견되었다. 프리마크측은 영국에서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붙여진 라벨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주목을 끌었다. 같은 해 4월 방글라데시에서 1,129명의 의류공장 노동자가 사망한 라자플라자 붕괴사고 이후 일어난 사건이라 개도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1969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첫 선을 보인 프리마크는 아일랜드와 영국, 유럽 전역에 290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유니클로,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미국의 포에버21과 비교되는 경쟁 브랜드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보스톤에 미국 1호점을 연 프리마크는 6월 현재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차레로 입점하며 미국 전역으로 매장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리마크의 영업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금,토 9시 30분)이며 일요일은 아침 10부터 저녁 9시까지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 도심 도로에서 열린 아디다스 그랑프리

보스톤 시내 특설무대 설치, 육상 필드 및 트랙경기 열려 요한 블레이크, 제니퍼 슈어 등 톱레벨 선수들 자웅 겨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올림픽 육상 메달리스트들이 육상트랙이 아닌 도심속을 질주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보스톤에서 열린 특별한 육상이벤트가 주말 도심을 달렸다.

스포츠 업체 아디다스에서 주최하는 아디다스 그랑프리가 19일 보스톤의 보스톤커먼과 퍼블릭가든 사이에 있는 찰스 스트리트에서(Charles Street) 열렸다.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날 육상 이벤트는 남녀 100m와 허들, 멀리뛰기, 장대높이뛰기 등의 15부분의 트랙 및 필드경기가 개최되었다.

이벤트성 경기였지만 참가선수들의 이면도 국제대회에 뒤지지 않았다. 남자 100m 세계 3위 기록 보유자(9.69초)이자 2011 대구 육상 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요한 블레이크(자메이카)를 비롯하여, 2015 선수권 여자 100m 허들 금메달리스트 다니엘 윌리엄스(자메이카),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장대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 제니퍼 슈어(미국) 등의 메달리스트들이 미국의 신예 선수들과 함께 자웅을 겨뤘다.

남자 100m 대회에서는 2014년 실내 육상 선수권 100m 은메달리스트인 마빈 브레이시가 10.223초로 요한 블레이크를 0.002초의 간발의 차이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 밖에 남자 110m 허들에서 미국의 로니 애쉬(13.39초), 여자 장대높이 뛰기에서 미국의 캐티 내지오트가 4.50m와 같은 무명선수들이 세계 톱레벨의 선수들을 꺾고 각각 우승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참가선수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특별한 이벤트를 즐기는 모습이었지만 경기에 임할 때만큼은 웃음기 없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자 110m 허들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로니 애쉬는 “육상트랙에서 달리는 것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른 것 같다. 하지만 시민들의 응원이 트랙 바로 옆에서 들려서 더 짜릿했



남자 100m에서 0.002초차이로 1위를 내준 자메이카의 요한 블레이크가 아쉬운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다” 라고 경기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보스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아디다스 그랑프리는 본래 뉴욕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세계육상연맹에서 매년 개최하는 육상 시즌)중 하나의 대회였다. 육상 1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는 2008년 대회에서 당시 세계 신기록(9.72초)을 수립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육상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장소가 뉴욕에서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로 변경되면서 뉴욕대회는 열리지 않게 되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체로 열리게 된 이벤트가 이번 보스톤 시내 특설 육상 이벤트다. 특설무대의 한계 상 진행할 수 없는 장거리 경기는 전날인 17일 서머빌의 딜보이 운동장(Dilboy Stadium)에서 열려 남자 5,000m에서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에티오피아의 데엔 게브르메스켈이 1위를 기록하는 등 15개의 트랙종목이 진행되었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죽상동맥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비노, 비염
- ⑦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 ⑧ 기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능성 있는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 미국 내 어린이 웰빙 지수 2번째

뉴햄프셔와 커네티컷 각각 4위와 5위
MA주는 교육 수준 높아 전체 순위 상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연구 자료가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비영리 단체 애니 케이스 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웰빙 지수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로 선정되었다. 매사추세츠 주보다 순위가 높은 주는 미네소타가 유일하다. 매사추세츠의 뒤를 이어서는 아이오와 주가 미국

에서 어린이 웰빙 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주였다. 매사추세츠 주와 함께 뉴잉글랜드 지역에 속해 있는 뉴햄프셔와 커네티컷 주도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주들이 어린이 웰빙 지수에서 미국 전체 상위 5개 중에 3곳이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애니 케이스 재단은 어린 아동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전체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각 주에서 가족 단위의 경제적인 웰빙 수준, 교육 수준, 건강 상태, 지역 커뮤니티와 가정의 관계 등을 수치화 하여 비교하였다. 가령 경제적인 웰빙 수준은 극빈층 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의 비율, 부모의 직업 유무, 가정의 렌트비 비중, 학교에 가지 않거나 일을 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 등을 토대로 작성된다. 매사추세츠 주는 경제적인 웰빙 수준은 11위에 그쳤지만 교육(1위)과 건강 상태(4위)가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어린이 웰빙 순위 2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특히 잘 되어 있다



복권 당첨 직원들의 신상과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500만 달러 복권 당첨금 20명이 나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로드아일랜드에서 한 회사에 근무하는 20명의 직장 동료들이 5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었다. 이들은 당첨된 복권 금액을 나누어 각각 25만 달러씩을 집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프로비던스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끼리 매주 돈을 모아 복권을 구입했다. 이들은 한 주는 파워볼, 다른 한 주는 메가밀리언을 번갈아 구입해 왔다. 이들이 지난 주에 구입한 메가

밀리언 복권이 6개의 숫자 중 5개가 당첨 번호와 일치하여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1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5배 당첨금 옵션을 구입하여 총 상금 500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복권 당첨 상금을 나눠 갖게 된 직원들 중 대부분은 곧 은퇴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어 더 쉽게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새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JEI 재능교육

SUMMER 2016

PREP COURSE

이번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Critical Thinking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여름 Java 강좌 일정

Java 기초과정(중학생 대상)
7/5 - 7/15: 9am - Noon(weekdays)

day1,2,3: Scratch를 이용한 Visual Programming
day4,5,6: Greenfoot를 이용한 Visual Java Programming
day7,8,9: JPassion.com에 있는 Java Programming Course

실습: **Graphics Game Programming** in Java

강사 약력: 강사는 SUN Microsystems사가 Java를 발표한 이래, Java Technology 설계팀의 리더(Main Architect)로서 세계 각지에 열린 많은 Java technology conference에 참석, Java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현재까지 Fortune 100 회사들에서 초청 강연자로 Java Program 보급에 Evangelist로 활동해 오신 베테랑 Java 전문가입니다.

FREE Enrollment!

*Free registration dates vary by location

JEI
Learning Centers®
jeilearning.com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5.0075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주책,론도,사업제,건물,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u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곧건)

보스톤 발 AA 뉴욕 비상 착륙 승객들 '죽는줄 알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180명의 승객을 태우고 19일 보스톤을 출발해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 뉴욕 케네디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보스톤을 출발해 약 30분경 폭발음이 들렸으며 직후 또한번의 폭발음이 비행기를 뒤흔들었다. 비행기 좌측 날개 엔진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비행기내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 올랐다. 승객들은 거의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20일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지난 일요일 불시착 사고가 단지 기계결함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당시 비행기

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죽음을 공포를 맞아야 했다. 비행기가 케네디 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기 전 한 승무원은 흐느끼기도 했다.

마이애미에서 사업을 하는 드루 네더펠트는 "비행기가 흔들리고 터널 거렸다. 사람들은 점차 공포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고 했다" 고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한 조종사는 필터가 막혀 오일이 엔진으로 스며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비행기내에 연기가 가득차면서 승무원들은 즉각 복도를 뛰어다녔다. 한 승무원은 마이크에 대고 흐느껴 승객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산소호흡 마스크는 작동

하지 않았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면서 승무원들은 머리를 숙이는 비상상황 시 대비 자세를 요구했다. 치과의사인 로미로 씨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 디에고 로미로 씨는 임신한 아내, 18개월된 딸 그리고 이모와 함께 휴가를 마치고 마이애미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이 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에게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제공한 후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게 했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의 원성을 샀다.

hsb@bostonkorea.com



뉴욕 증권 거래소

금융시장은 英 EU 잔류를 선택했다...일제히 상승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밤 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를 미리 반영했다. 이른바 '브리메인' 기조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격이 뛰어올랐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달러에 대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제 전망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견혀 갈 것이라 기대감에 호주와 뉴질랜드 등 원자재 생산국가와 브라질과 러시아 등이 대장국 통화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안전통화라고 불리는 일본 엔화의 가치는 역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가격과 함께 급락했다.

23일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전장보다 1.21~1.34% 급등했다. 뉴욕증시 대표지수인 S&P500은 2100선을 다시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에 1% 가량 차이로 다가섰다. 유럽증시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범유럽지수인 FTSE유로퍼스트300지수와 스톡스600지수는 2주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파운드화는 1.05% 오른 1.4852 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 때 1.4946달러까지 치솟아 지난해 12

월3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 0.50% 오른 1.1349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 때 1.1421달러로 상승해 6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달러-엔 환율은 106.01엔으로 1.6% 급등했다. 파운드와 유로는 엔화에 대해 각각 2.7% 및 2.3% 치솟았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보다 0.23% 하락한 93.3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 통화들도 달러에 대해 일제히 급등하는 위험선호 랠리가 펼쳐졌다.

투표 개시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브리메인이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심리가 부양됐다.

국제유가도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 8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98센트(2.0%) 상승한 배럴당 50.11달러에 체결됐다. 브랜트유 8월 물은 배럴당 1.03달러(2.1%) 하락한 50.91달러를 나타냈다.

acenes@news1.kr

美 대법원, 오바마 이민 개혁안 제동... "마음 찢어질 것"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민 개혁안에 제동을 걸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유예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이 권한을 넘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항소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곳에 살고있는 수백만 이민자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 미국인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개혁은 이르나, 혹은 늦춰지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영원히 미국을 모르는 척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체제를 유지했으나 지난 2월 앤

터닌 스켈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8명 체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오늘의 가슴아픈 판결로 추방에 직면한 500만명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전했다.

ejjung@news1.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美 하원 이례적 단상점거 연좌농성... 총기규제 촉구

민주당 흑인 인권운동가 출신 루이스 의원 주도... "입법 없이 휴회 없다"
라이언 의장 휴회 · 의회중계도 중단... 소셜미디어 라이브 중계시작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2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총기규제 강화 입법을 촉구하며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참사인 플로리다 올랜드 총격테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 상원에서 감시명단에 오른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총기구매 금지, 총기박람회 · 인터넷 구매를 포함한 전면적 신원조사 시행 등 4건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모두 부결된 데 따른 행동이다.

단상에 오른 존 루이스 하원의원(조지아)은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침묵해왔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하원 단상을 점령하겠다"고 나섰다. 루이스 의원은 1960년대 흑인 참정권 운동을 벌인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유명한 인권운동가 출신이다.

이날 연좌농성에는 루이스 의원을 포함해 수십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법 없이 휴회도 없다"(No bill, no break)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갔고, 참여자 수는 100명가량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공화당의 테드 포 하원의원(텍사스)이 낮 12시쯤 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의사장을 방문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후 1시쯤 휴회를 선언했다. 애슈리 스트롱 의장 대변인은 "하원은 규칙을 따

르는 의원들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하원의장 요청에 따라 휴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의사당 불이 꺼지고 마이크 전원이 꺼진 이후에도 수시간째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의회 중계방송국(C-Span)의 방송은 중단됐지만, 소셜미디어 라이브 비디오 페리스코프,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중계도 지속했다. C-Span 방송이 꺼진 상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중계방송이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원 역사상 보기 드문 풍경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인 데비 와서만 숄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더 이상의 올랜드, 오로라는 없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로빈 켈리 하원

의원(일리노이)도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총에 맞고, 죽어야만 하느냐"고 호소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주도로 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수차례 입법 시도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라이언 의장은 올랜드 총격사건 이후에도 총기규제 법안 표결일정을 잡는 것을 거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좌농성에 대해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총기폭력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 준 존 루이스에게 감사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yeoulim@news1.kr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2일(현지시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입법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흑인 인권운동가 출신 존 루이스 하원의원(조지아) 등 수십명이 이에 참여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상원 총기규제 법안 부결 "비겁한 행위" 비판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상원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 부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코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MSNBC방송 '모닝조'에 출연해 "지난밤 미국 상원에서 본 광경은 수치스러운 비겁함을 전시킨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비겁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공화당은 잇단 총기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공화당은 지난주 내내 '극단적인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해 말하고 다녔다. 그러나 실제 급진주의자들의 총기구매를 막을 수 있는 때가 오자 이들은 '이탈'했다. 전미총기협회(NRA)가 두려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너무도 수치스럽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은 전날 감시명단에 오른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총기구매 금지, 총기박람회 · 인터넷 구매를 포함한 전면적 신원조사 시행 등 4건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모두 부결했다.

이번 표결은 지난 15일 크리스마퍼 상원의원(코네티컷)이 장장 15시간에 걸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며 압박해 성사된 것이다.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코네티컷을 지역구로 하는 머피 의원은 49명의 희생자를 낳은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 플로리다 올랜드 게이 나이트클럽 테러를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머피 의원을 필두로 30여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루를 꼬박 넘기면서 토론을 이어갔으며, 초당파적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yeoulim@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브렉시트와 트럼프... 닮아도 넘 닮은 공통점 5가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3일(현지 시간)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치른다.

브렉시트 찬반 여론으로 크게 분열된 영국에 대해 CNN은 "도널드 트럼프 시간을 겪고 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브렉시트 찬성측이 유세 과정에서 보인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과장된 애국심, 포퓰리즘적 공약 등은 미국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움직임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과 트럼프 선거 캠프의 이 같은 공통점은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를 분열시키며 극도의 혼란상을 보였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 독립당대표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브렉시트 찬성 진영과 트럼프 후보의 면면을 비교해봤다.

◇이민자 적개심-비뚤어진 애국주의

멕시코 이민자를 강간범으로 묘사하고 무슬림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국내외 큰 비판을 불러왔지만 한편으로 저소득 백인층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 역시 영국의 안전과 번영을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내걸어 저소득 노동자층의 환심을 샀다. 실제로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은 고령이면서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저소득 백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쪽의 구호도 비슷하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동안 브렉시트 찬성 극우단체는 '영국이 먼저다(Britain First)'란 이

를 걸고 캠페인을 이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친다면 브렉시트 운동가들은 대영제국의 찬란한 과거를 언급하며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과 이민자를 피아(彼我)로 나누고 이민을 받지 않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비뚤어진 애국주의는 사회 전반에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패라지 독립당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솔직히 루마니아인들 옆에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며 인종주의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내뱉기도 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두려움 뿐만 아니라 증오를 끌어내고 있다"며 EU 탈퇴 진영을 비판했다.

◇국경 통제

트럼프와 브렉시트는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도발에 대한 예방책으로 모두 국경 통제를 내걸고 있다.

브렉시트 진영은 EU 탈퇴 후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 독자적으로 테러범들의 입국을 원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탈퇴 측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EU법 때문에 외국인 범죄자들을 국외로 추방하기 어렵다"면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의 안보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12일 올랜도 총격 테러가 발생한 뒤 또 다시 무슬림 임시 입국 금지를 제안하며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미국의 문을 걸어잠그겠다고 밝혔다.

◇新고립주의

존슨 전 시장은 지난 5월 EU를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시도에 비유했다.

그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이런 것을 원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유럽을 EU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존슨의 이 같은 비유는 세계화에 대해 연거푸 반대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와 닮았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진행된 외교정책 연설에서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에 맞서기 위해 세워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며 해체를 주장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주둔 부담금이 적다"는 이유로 동맹 체제를 흔들겠다고 경고했다.

◇무역협정 원점 재검토

브렉시트 찬성 지지자들과 트럼프는 모두 현재 맺어진 무역협정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역시 "명청한 정치인들이 명청한 협정을 맺었다"면서 공공연히 FTA를 비롯한 각종 무역협정을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 진영은 EU 국가를 상대로 한 영국의 무역적자가 크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다. 또 자동차, 명품, 올리브 오일 등 영국에 수출품을 지닌 EU 국가들은 영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EU잔류 진영은 영국의 대(對)EU 수출액은 GDP의 13%에 달한다며 EU로 구성된 무역 공동체를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브렉시트 지지 단체 '탈퇴에 투표(Vote Leave)'의 매튜 엘리엇 위원장은 "영국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며 스스로 위대한 무역 역사를 지니고 있다"면서 EU탈퇴로 인한 무역 적자 우려를 일축했다.

◇곳곳에서 폭력 양상

트럼프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정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도 마땅찮은 대선 토론회에

서는 전례없는 막말과 유언비어가 도배되고 있다.

브렉시트 찬반 여론으로 양분된 영국 사회에서는 EU 잔류 운동에 동참했던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이 기습 피살됐다. 빈이민 극우주의자로 알려진 용의자는 콕스를 공격하면서 "배신자에게 죽음을, 영국엔 자유를"이란 구호를 외쳤다고 전해진다.

런던 시민 안토니 던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진행시킨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를 겨냥해 "보수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 나라를 쪼개버렸다"면서 증오와 적개심이 팽배한 현 영국의 상황을 지적했다.

yjw@news1.kr



안보 위안 국경 통제 강화	국경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및 무슬림 입국 금지 공약
"루마니아인 옆에 사는 게 두렵다"	제노포비아	"멕시코 이민자는 강간범"
독자적 자유무역 협상 촉구	무역	보호무역주의 주장
"국민투표일을 독립기념일로 만들자"	애국심 고취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미국 만들 것"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시도한 유럽 정복 시도를 EU에 비유	고립주의	"잘못된 세계화에 굴복하지 않겠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SUMMER SPECIAL SALE EVENT

**Espresso Machine
Grinder
Real Fruits mix**



Torani Real Fruits Mix



Nuova Simonelli Espresso Machine



(New & Used: \$4,000-\$8,000)

Café Business Consulting

Café Coffee Shop & Ice Cream Shop
Opening Turnkey Base / Business Consulting
Interior Design / Free Estimate
장소선택, 상권분석, 종업원 채용, 바리스타 교육
은행융자 및 장비리스 상담



**4계절 파이를 창출해 줄
Cafe 비즈니스 아이템**

최고 품질의 커피 메뉴, 프루츠 스무디,
리치드슨 아이스크림 및 클래식 샌드위치
제일려 카페가 여러분에게 환영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투자비용: 약 15만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

Mr. Paul Son: bkcson@gmail.com | 781.704.4825
BKC Corp. 186 Cambridge Rd. Woburn, MA 01801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전부집 \$700,000, 주거면적 3072 sq. ft. 현대식 욕기
500 콘크리트, Garden Window, Hard oak floors,
porcelain counters, stainless steel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강력히 있는 4차.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45,400, 주거면적 2300sq, 대지면적 4800sq,
멋진 학교, 잘 관리된 정원, Green free D 콘크리트,
대수 화장실의 위치, 좋은 건물, 5 year Roof,
현대식도 heating system, 강판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지붕이 있음, 총 수입 약 95,000,
대지 면적 8599 sq.ft, 난방 \$6800



Newton \$1,200,000
2가구집주, 안수잔 \$81,500, 대지면적 6200sq. ft,
현대식 욕기 욕이 있음,
연료비가 낮은 위치(T 콘크리트, 보스콘힐리지



Newton \$1,999,000
30+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07sq.ft,
대지면적 10990 sq.ft, 2차, 화장실 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합 4차 화장실 3개, 멋진 학교
보거드론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90sq.ft,
대지 면적 700 sq.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85,000
30+년 새 집도, 멋진 학교, 편리한 교통,
연료비가 저렴한 디젤난방, 합 2차, 화장실 2개,
주거면적 1300sq.ft, 30년째는 합 1차, 낡았음
95 고속도로 콘크리트,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 집, 합 2차,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3000sq.ft, 대지 면적 1075 sq.ft,
Hardwood 콘크리트.



Boston Fenway \$ 364,000
합 1차, 화장실 2개, 주거면적 678sq.ft,
콘도 fee \$ 230 (Heat, Hot water 포함)
보스콘 힐리지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280,000
2013년 새 집 최고의 학교 합 2차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ft, 대지면적 17540sq.ft,
아후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김해공항 확장'외국용역은 믿는다? 불거지는 ADPi 신뢰성 논란

ADPi 거쳐 2배 급증한 수용인원 전망... 김해공항 확장방안 핵심변수돼
짜맞추기의뢰용역 의혹... 50만 시가지 지나는데 소음피해 고작 1500가구?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ADPi의 손을 거치며 김해공항의 수용인원 전망치가 과거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르고 소음과 안전성 문제도 축소돼 '짜맞추기'식 의뢰용역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ADPi 거쳐 2배 급증한 수용인원 전망... 김해공항 확장방안 핵심변수돼

ADPi와 국토부는 지난 21일 오후 '영남권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확장할 경우 최대 3800만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 부지 인근 땅을 공항 내로 편입해 활주로를 V자형으로 구성하고 독립 활주로를 만들면 3800만명에 이르는 승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각에선 ADPi의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김해공항 확장을 담으로 정해놓고 숫자를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용인원

전망이 기존의 조사결과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을 검토할 당시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등은 김해공항 활주로 1본 확장을 전제로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수용인원은 5~20% 정도 밖에 늘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3년 1700만명 기준으로 최저1785만명에서 최대 2050만명 수준을 전망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영남권 지자체 등이 신공항 입지 선정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지만 그때마다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실효성 미흡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ADPi가 콜럼버스처럼 달걀을 (깨트려) 세우는 발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V자형 활주로를 고안해 김해공항 확장방안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영남권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ADPi의 손을 거쳐 2배 가까이 급증한 3800만명 수용인원 전망이 김해

공항 확장방안 채택의 핵심적인 변수가 된 만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공항시설 및 구역, 활주로 용량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다.

◇ 50만 김해 시가지 지나는데 소음 피해 고작 1500가구?

소음 피해 규모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DPi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으로 소음대책지역 가구 수는 702가구에서 1575가구로 증가한다.

하지만 김해공항의 이착륙시 인구 50만명의 경남 김해 시내를 지나는데 활주로 1본의 추가될 경우 1년에 15만 2000차례인 항공기 이·착륙 횟수 수용능력이 29만 9000차례로 대폭 늘어나면서 반복적인 소음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 남쪽에는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등 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소음피해 현황을 단순히

1500여가구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ADPi 용역결과를 절대 신뢰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ADPi가 입지평가 과정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전문성을 갖고 충분히 평가한 것"이라면서 "피해 가구도 2045년의 항공기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 국토부, 외국용역 제시한 '김해공항 확장방안'에만 신뢰?

ADPi의 용역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연이어 제시되면서 국토부도 곤혹스러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사실상

2009년과 2011년 용역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차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국토부가 사실상 상반된 대안을 제시한 ADPi의 용역결과를 수용하면서 책임론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한 항공 관계자는 "결국 김해공항의 수용능력 포화를 두고 신공항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토부가 같은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두고 국내 연구용역업체와는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고 외국용역업체 결과는 절대수용하면서 사실상 6년을 허비한 모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회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이 직접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칼린)

617-981-1542

Umi Cho (우 현희)

508-641-8924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NE 24 - JUNE 30, 2016

Now kimchi and maple bacon takes eating your mac and cheese to a whole new level.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즐거워 마카로니, 부드러운 치즈, 언제나 맛있는 베이컨과 느끼함을 잡아주는 김치! 완상의 조화를 이루는 H마트표 김치 메이플 베이컨 맥앤치즈를 만나보세요!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5.99 ea.</p>	<p>Dragonfruit 드래곤프룻 \$3.99 lb.</p>	<p>Ataulfo Mango 아탈포 망고 \$10.99 box</p>	<p>White Peach 백도 \$1.99 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p>
<p>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햇골드 키위 \$22.99 box</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lb.</p>	<p>Ginger 생강 \$0.99 b.</p>	<p>Lychee 리치 \$3.99 lb.</p>	<p>MANNA I Love Tofu 아이 러브 두부 Firm/Soft/Siken - 14oz \$0.88</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D.A. CHOICE Beef Heel Meat 사육 \$6.99 lb.</p>	<p>U.S.D.A. CHOICE Boneless New York Beef Strip Loin Steak 뼈없는 뉴욕 자른 스테이크 \$15.99 lb. (FRIDAY/SUN ONLY 24/25/26 ONLY)</p>
<p>FRESH Pork Spare Rib for BBQ 바베큐용 돼지갈비 \$3.49 lb.</p>	<p>FRESH Chicken Wing 닭날개 \$1.99 lb.</p>
<p>FRESH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목고기 \$4.99 lb.</p>	<p>FRESH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5.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ESH Salted Golden Pompano 냉동 자반 금병어 \$5.99 lb. (FRIDAY/SUN ONLY 24/25/26 ONLY)</p>	<p>FRESH Smelt 냉동 방어 \$2.99 lb. (FRIDAY/SUN ONLY 24/25/26 ONLY)</p>
<p>FRESH White Bass 하이트 베스 \$2.99 lb. (FRIDAY/SUN ONLY 24/25/26 ONLY)</p>	<p>FRESH TONGTONGBAY Dried Bok Kum Anchovy 통통배 건복숭 유우 멸치 Sec./Medium - pkg. \$5.99</p>
<p>FRESH TONGTONGBAY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박스 80-100 1/2 lbs. - pkg. \$3.99</p>	<p>FRESH WEST BAY Carving Squid 웨스트 베이 송골방 오징어 1 lb./pkg. \$3.99</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AGAWA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와 쌀 (정미후) 15 lb. \$19.99</p>	<p>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코쿠호 쌀 (정미후) 15 lb. \$9.99</p>
<p>HANGDUM Korean Style Premium Fresh Cold Noodle 2.2 lb. \$3.99</p>	<p>ORGANIC VALLEY Organic Milk 농부님 엄선 유기농 우유 All Varieties 2.1 L \$3.99</p>

BEST SELLERS SALE-A-BRATION!

하마트 인기 브랜드 모음전

Danya, GINSUNG, 바다나리

하마트에서 인기 브랜드 모음전이 펼쳐집니다.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June 24 - July 4, 2016 at All Hmart MA Stores

<p>CJ 햇반 백스 2.4oz x 12oz/box \$12.99</p>	<p>DAECHUNG Roasted Seaweed Layer 다진 김 연불계피 All Flavours 2.0oz x 100ea./box \$10.99</p>	<p>CHUNG JUNG ONE Seasoned Bean Paste 양념된 순장 양념콩짜장 양념 2.2 lb. \$3.99</p>	<p>HAKIRUM Canned Be Top Shit 해물볶음 14 oz. \$4.99</p>	<p>CJ Bebeo Corned Beef/Bean CJ Bebeo Classic Dumpling Crispy Potstickers 1.75 2.8oz. \$5.99</p>
<p>DONGWON Canned Tuna with Hot Pepper Sauce 통일 고추장짜장 70g/3.5oz. x 6pkgs. \$7.99</p>	<p>BEKSUL Plum Syrup 고급 배나무 복합 과일향 36.16oz/uc. \$8.99</p>	<p>KADOYA Pure Sesame Oil 자두야 참기름 28.1oz. \$14.99</p>	<p>CHIRP DONG Dried Wink Squid 소문동 건오징어 2.2 lb. / 10oz. - pkg. \$29.99</p>	<p>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아리조니아 선인장 꿀가루 1 lb. \$2.99</p>
<p>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후이퐁 스테이크 양념 8oz. \$3.99</p>	<p>SHIRAKIKU Ramune Drink 시라키쿠 라무네 드링크 All Flavours 20 oz. \$0.99</p>	<p>GLASS LOCK Food Container 유리스탁 적시기용 현대형 열매용기 GLASS LOCK Food Container 2.8L/9.5oz. - box \$10.99</p>	<p>THE GLASS Vincent Van Gogh Cup Set 데 글라스 코프 볼링 세트 4.99/box \$4.99</p>	<p>THE GLASS Drinking Mug & Jar Set 데 글라스 도방 컵 & 도방항아리 0.75L/25.3oz. - box \$5.4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s/error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 모든 매장은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 모든 매장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 모든 매장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 모든 매장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받습니다.

김종인, 대표에서 킹메이커로 변신중?...대선주자 잇달아 만나

안희정 · 김부겸 · 박원순과 회동...손학규와도 광주서 만나

(서울=뉴스1) 조소영, 박승주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대구 수성갑) 더민주 의원 등과 만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킹메이커는 지난 대선(박근혜 대통령)을 끝으로 더 안 한다고 결심한 상태"라고 했지만, 23일 오후에는 광주에서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과도 만남을 가졌다.

김 대표는 안 지사를 이달 중순 서울 모처에서 만나 1시간여 대화를 나눴다.

안 지사 측은 "총선 전부터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번에 만나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총청대망론'을 품고 있는 안 지사와의 만남은 만남 자체로 관심을 끌었다.

김 대표는 박 시장과도 지난주에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은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총선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으로 안다"며 "대선과 관련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의 접촉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홍의락 의원 문제 때문에 대구에 잠깐 오셨을 때 외에는 못 봐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 측은 "이들을 만나서 의사를 들어보고 (대권) 꿈을 꾸려면 시대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라는 조언을 한 것"이라며 "내년 대선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인데 김 대표

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찾아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 지사, 박 시장, 김 의원 등과 함께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손학규 전 고문과는 이날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세계웹툰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만났다.

김 대표는 손 전 고문이 '당의 안정화'에 관한 공(功)을 언급하면서 인사를 건네자 "서울은 언제 올라오실 거냐"고 물었다. 뒤이어 손 전 고문이 "이제 올라가야죠"라고 답하자 김 대표는 "하여튼 빨리 오시면, 한번 뵈요"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총선 운동기간 손 전 고문은 김 대표로부터 유세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끝내 거절했다. 당시에도 두 사람 사이에 전화통화만 있었을 뿐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은 김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직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에서 "아직 뚜렷하게 대통령감을 못 만난 것 같다"고 언급했던 가운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통령감 물색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손 전 고문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전 고문이 대선주자로 나오길 바라느냐", '야권 잠룡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는 질문

을 받고 "그런 거 관계없이 만나다", "선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냐'는 질문에 "누가 가장 적합한 것 같냐"고 반문한 뒤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16 광주세계웹툰페스티벌에 참석해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악수를 하고 있다

與 권성동 사퇴했지만...김희옥 '상처받은 승리'

권성동 사무총장 친박 공격받으며 맷집 키워 김희옥 '권성동 버티기'로 리더십에 타격

(서울=뉴스1) 박선미, 이정우 기자 = 내용에 휩싸였던 새누리당이 23일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로 돌파구를 찾았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당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김 위원장은 당을 격랑으로 몰고갔다는 비판과 함께 '상처받은 승리'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한 만큼 비대위원장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제가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며 "권 사무총장이 당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일괄 복당 방침'을 둘러싼 이견에 따른 경질 입장에서 '당무상 견해차에 따른 교체'로 물러났고 권 사무총장도 '사퇴 불가'에서 '사퇴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양측 다 한발씩 물러선 모양새다.

이들은 후임 사무총장을 '중립적 인사'로 선임키로 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중재안을 내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권 사무총장이 사퇴하며 김 위원장이 승리를 거머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권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혁신비대위의 '일괄 복당' 결정 과정에 비중있는 역할을 하면서 친박계의 주요 공격대상이 됐다.

애초 친박계는 정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했으나 여론 악화를 감안해 권 사무총장으로 타격을 조정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뺨 대신 닭'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권 사무총장도 '명분 없는 경질'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권 사무총장은 친박계의 공격을 한몸에 받으면서 맷집을 키웠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존재감이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 사례처럼 3선의 권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로 중앙무대 정치인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까지 내놓는다.

당 안팎에서는 친박의 공격을 받는 이는 부각되고 친박은 왜소해지는 '친박의 역설'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자신의 의중대로 권 사무총장 사퇴를 관철시켰으나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는 탈당과 무소속 의원의 일괄복당 결정에 반발, 지난 16일 집거에 들어갔다가 20일 당무에 복귀했으나 당을 정상화하지 못했다.

당무 복귀의 명분으로 내세운 권 사무총장이 나흘째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

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도 이렇다할 정치력을 보이지 못한 채 권 사무총장 경질을 고수, 계파 갈등을 키웠다. 사태 막바지에는 정 원내대표 등 제3자의 중재안이 거론되는 등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비박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친박계의 뜻대로 움직인다", "비대위의 역할이 사실상 끝났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외부에서 영입한 지도자라는 점에서 예우를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당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일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 등의 복귀로 비박계의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친박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김 위원장이 순항할지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전으로 비대위가 크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비대위의 시험대는 전당대회까지 순항 여부일 것이다. 권 사무총장은 정치인으로 새 임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gsm@news1.kr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좌)가 23일 여의도 새누리당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주호영, 이철규 새누리 복당신청 완료 與 129석으로

주 "보수대단결과 당의 혁신 화합을 위해 헌신할 것" 이 "자유와 민주, 합리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거듭 나는데 앞장"

(서울=뉴스1) 최홍무 기자 = 새누리당 복당이 승인된 탈당파 의원 7명 중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던 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초선의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22일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 의원이 오늘 오후 1시 42분에 지역 사무국장을 통해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복당 신청과 관련, "비대위가 7명 무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일괄 복당을 승인했고, 지역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수대단결과 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이날 오전 11시 30분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일괄복당 방침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의 공천오류를 인정하고 민심을 받들겠다는 변화의 의지로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해 자유와 민주, 합리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탈당파 의원들에 대한 일괄 복당을 결정 이후 7명 의원 전원이 복당됐다.

당 혁신비대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복당을 신청한 장제원 의원과 주, 이 의원에 대한 복당을 승인할 방침이다.

3명의 복당 승인이 완료되면 새누리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늘어난다.

ykjmf@news1.kr



주호영 의원(좌)과 이철규 의원(우)



지나 정 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모바일 banking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올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Member FDIC, Member DIF.

고품질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ASC : Boston's #1 ESL School (F1 Students 환영)

CSI 학생이
트랜스퍼할 경우 10% 할인
WhatsApp us Now
617-407-2336



- 1**
- ESL Class (6 Levels)
 - TOEFL
 - Public Speech
 - Idioms
 - IELTS
 - Business English
 - Daily Conversation

2 ASC가 특별한 이유! 아래의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Ragis College	Worcester College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New York Film Academy			

3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Pathways Program ASC Pathways Program에서 level 5 이상을 이수하시면 BS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I. (617) 338 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탈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집단탈북' 논란 이대로 관철나... '수상한 정부 VS 법 앞세운 민변'

정부, 이례적 발표부터 국정원 보호결정... 기획탈북 논란까지 탈북 전문가, 민변이 오히려 인권침해... "가족 생사 달린 문제"

(서울=뉴스1) 권혜정, 양새롬 기자 =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둔 지난 4월8일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들의 집단탈북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 신청 등으로 인해 증폭됐다.

여기에 정부가 집단탈북한 이들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현재 머물고 있는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획탈북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다.

21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초 국정원으로부터 집단탈북한 이들에 대한 보호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집단탈북이라는 특성과 북한의 선전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국정원장 명의로 이

들에 대한 보호결정을 내렸다. 현재 집단탈북한 여중업원 12명과 남성 지배인 1명은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났으며 이들은 앞으로 6개월 가량 이곳에 머물며 남한 정착 교육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대부분의 탈북민에게 취해지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통의 탈북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해 1~2개월 정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 입소해 12주 동안 남한 정착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간혹 위장탈북이나 간첩 혐의 등의 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보호센터에서 합동신문을 최장 6개월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단탈북한 이

들의 '자유 의사'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결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탈북이 자의나 타의나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집단탈북을 둘러싼 논란이 민변에 의해 시작, 증폭됐다고 주장한다.

탈북 단체 전문가들은 '자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민변의 각종 문제제기가 집단탈북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탈북 통로마저 끊어 놓을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집단탈북한 이들이 재판을 통해 자유의사를 밝힐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고, 반대로 기획탈북이었다고 말할 경우 나쁜 선례를 남겨 앞으로 탈북할 이들의 통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NAUH 대표는 "민변의 취지는 집단탈북한 이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것인데, 그들은 재판을 통해 흑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인질에 잡힐 수 있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변이 앞으로 탈북하는 이들에 대한 변호를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례로 인해 탈북민들의 신상 등이 알려질 경우 두려움에 탈북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민변에 법이 농락 당했다"며 재판이 열리는 현 상황은 북한이 바라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북한이 작정한 것 같다"며 "민변이 이에 동조하고, 법원이 높아났다는 점에서 탈북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천낙봉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에 참석하며 자신을 애국단체 사람이라고 밝힌 여성으로부터 "좀 이르지 않냐"며 항의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현직 검사 이어 수사관까지 연루...환부 도려낼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검찰 내부로 향하고 있다.

정 전 대표 측의 로비가 현직 검사에 이어 현직 검찰 수사관에게까지 뻗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 흥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와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에 대한 정 전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검찰의 '제 살 도려내기'가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수사관 김모씨를 체포하고, 김씨 주거지와 검찰청사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가져온 압수물 등을 토대로 이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유와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와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 가 감사원의 감사 무마 등을 대가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역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21일 해당 검사의 주거지와 검찰청사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다른 검찰 수사관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이 수사관은 검

찰이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한 부서에 근무했고, 금품을 받은 시기도 이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구명 활동에 개입한 검찰 수사관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아 도주 중이던 이민희씨와 서울지역 검찰청 소속 A 차장검사가 대포폰(차명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A 차장검사가 이씨와 통화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검찰은 전화로 경위를 파악한 뒤 이 역시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결론지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A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자수를 권유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해명했다.

검찰은 또 흥만표 변호사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정원 2차장)과 두 번 만나고 6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서면조사를 통해 흥 변호사의 로비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cho84@news1.kr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오른쪽)와 흥만표 변호사

3野,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차대통령 결단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완주 더민주, 김관영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결의안에서 박 처장을 "2011년 2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장으로 현재 5년 5개월째 재임 중인 자"로 지칭했다.

야3당은 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였던 제11공수특전여단을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 참여를 추진한 데 대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은 "박 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으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3년 국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반대 △국회 의정활동 방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공개지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야3당은 "박 처장은 국회 결의안을 3년이 넘

게 고의로 방치하고, 재임 기간 5년여 동안 개인적 소신이라는 궤변을 앞세워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지속적으로 모욕함과 동시에, 특정단체를 앞세워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등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향해 박 처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박 수석은 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20대 국회 들어서 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이) 세 번째 국회에 제출하는 해임촉구결의안이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협치는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저희는 새누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도 "(이것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parksj@news1.kr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웹사이트: www.masta.us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계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정회원(\$100/년): 감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worshipfrontier.org/music-academy

WF 뮤직 아카데미

Intensive Summer Music Academy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Worship Frontier Music 전문 음악 강사들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 수업진행방식:
 - 핵심적인 음악이론 공부와 악기레슨
 - 앙상블을 통한 실제적인 악기레슨
 - 기간동안 매주 별도의 한시간 개인레슨 제공
 - 배운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공연예정(마지막주)
- 기간: 6월 30일(목) - 8월 18일(목), 매주 목요일(총8주)
 - 청소년반: 3:30pm - 6pm
 - 성인반: 6:30pm - 9pm
- 악기: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기타, 피아노, 보컬
- 강사: WF 전문음악인(버클리 및 타음대 BA 및 MA)
- 수업료: \$250

주관: Worship Frontier Music
 장소: 1319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등록 및 문의: 이덕현(WF Music Academy Director)
 worshipfrontierfb@gmail.com Cell) 617,835,4888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7 - 8/5
 Courses, SAT Prep, Competition Math
 가을학기 시작 9/6

뉴턴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거주자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김형진
781-956-0409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 625,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40 sf.
타운안 최고의 위치, 새부엌,
마루바닥, 지하 Playroom
이현주 401-935-3397



\$71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880sf.
잘 꾸며진 play room, sundeck
3zone Heating/ 2 zone Air
이현주 401-935-3397



\$1,049,000
Acton, MA
4 Beds, 4 Baths, 3652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Gina Choi 978-866-3248



\$1,149,000
Lexington, MA
5 Beds, 2.5 Baths, 2,907sf.
최고의 학군, 대중 교통
조용하고 편리한 환경
신보경 508-361-6064

단독주택 Single Family House Rental



\$349,900
Framingham, MA
3 Beds, 2 Baths, 1,750sf.
Fenced Large Back yard,
Updated Interior
Steven Son 617-290-0623



\$649,900
Andover, MA
4 Beds, 2.5 Baths, 2,377sf.
좋은 학군, 조용한 환경
아름답고 넓은 정원
Janice Lee 978-806-6023



\$325,000
Acton, MA
2 Beds, 1 Bath, 1,107sf.
넓은 대지 (0.36 Acres)
좋은 학군, 새 건축에 좋은 기회
Anna Jung 617-780-1675



\$2,600 /mo.
Lexington, MA
2층2Beds1bath+3층 2Beds1bath,
최고학군, 편리한 위치
홀스태이에 최적의 조건
Janice Lee 978-806-6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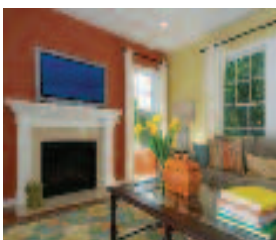
Condo Rental New Construction



\$1,835/mo.
Brighton, MA
1 Beds, 1 bath, 609 sf.
전철역 (Green Line) 인접
Wholefoods Market
Steven Son 617-290-0623



콘도/타운하우스/단독주택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Boston, MA
Downtown Crossing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New Star 781-259-4989

Condo Rental
\$2,200/m
Allston, MA
2 Beds, 1 Bath, Garage parking
Steven Son 617-290-0623

APT Rental
\$1,000/m. utility포함
Wilmington, MA
2 Beds, 1 bath, 1,200 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Michael Yun 617-459-5985

Condo Rental
\$2,000/mo.
Waltham, MA
2 Beds, 2 bath, 1,060 sf.
Shell Yu 781-526-2416

Condo Rental
\$2,200/mo. Luxury Condo
Allston, MA
2 Beds, 2 bath, 850 sf.
Steven Son 617-290-0623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여명의 매출실적 / 60여 지역 3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스티븐 손
617-290-0623



박성종
617-304-7001



Steve Yoo
617-386-3451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Pick-up Cleaners  Exclusive \$70,000 Wakefield, MA Busy Street, 넓은 주차장 x/ CVS, 은행 & hair salon Anna Jung 617-780-1675	Pick-up Cleaners  Exclusive \$149,000 Waltham, MA 바쁜 길 안에 위치, 상업중 확장가능 스티븐 손 617-290-0623	Full Plant Dry Cleaner  Hot Listing \$280,000 연매상 \$300k I-495 근접 경험필요 대부분 새 기계, 은퇴매각 탄탄한 단골, 보장된 수입구조 스티븐 손 617-290-0623	Full Plant Dry Cleaner  Exclusive \$159,000 I-95 Inside, MA 많은 포텐셜, 대부분 새 기계 정확한 매상과 기록 스티븐 손 617-290-0623
--	---	---	---

Deli & Meat  Exclusive \$150,000 Brockton, MA (Busy Mall) 2,200sf. Lottery/cigarette 연매상 \$900,000 25년간 운영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Exclusive \$500,000 Harvard Square (Cambridge)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sf. 120 seat Capacity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Exclusive \$499,900 Brookline, MA Including Liquor License 5000sf. 180 Seat Capacity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Exclusive \$120,000 연매상 \$180k I-95/128 근접 상업중인 한국 식당, 은퇴매각 Wine/Beer Permit, Low Rent 스티븐 손 617-290-0623
--	---	--	---

Nail Salon  Exclusive \$150,000 Burlington, MA 스티브스 옆 1001/10P ATM, 60 inch TV 4대 포함 Anna Jung 617-780-1675	Nail Salon  Exclusive \$250,000 Lexington, MA 1,850sf. 넓은 주차공간 좋은 위치, 고급 시설 Anna Jung 617-780-1675	Nail Salon  Exclusive \$110,000 Cambridge, MA Porter Square 400sf.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Exclusive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 Bar 상업중인 안정된 식당 SJ Park 617-304-7001
--	--	--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프랜차이즈 한국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셋업 무료 상담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95,000 Boston, MA 아주 좋은 위치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2016 시즌에 주목해야 할 패트리어츠 선수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 시즌을 바라보는 패트리어츠 팬들의 기대는 큰 변함이 없다. 몇몇 선수들이 떠나고 스타 쿼터백에 대한 징계가 예상되지만 패트리어츠는 여전히 수퍼볼 우승권에 근접한 팀으로 여겨진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을 포함하여 패트리어츠에는 올해가 기대되는 젊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그 중에서도 선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모를 2016 시즌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자.

QB Jimmy Garoppolo

80여일 남아 있는 2016 시즌 개막일까지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주전 쿼터백인 탐 브래디는 첫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프로 3년차에 접어든 지미 거라폴로가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이 4경기는 설령 거라폴로가 패트리어츠를 떠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지라도 풀타임 주전 쿼터백이 되기 위한 좋은 리허설이 될 수 있다.

거라폴로는 스타 쿼터백인 브래디에 가려져 있지만 NFL에서 스타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는 선수다. 훌륭한 팔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포켓에서의 움직임도 좋다. 기회가 주어지면

다면 충분히 기량을 뽐낼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브래디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어쩌면 올해 첫 4경기는 거라폴로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거라폴로는 패트리어츠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게도 자신이 스타팅 쿼터백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DT Malcom Brown

2015 NFL 드래프트에서 말콤 브라운이 1라운드에서 호명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1라운드에서 브라운을 선택했고, 브라운은 올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브라운은 루키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비록 패스 러셔로서의 임팩트는 부족했지만 러닝에 대한 수비에서는 제 몫을 해냈다. 루키 시즌을 훌륭히 보낸 브라운은 올해 프로 2년차로 패트리어츠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패트리어츠는 디펜시브 라인에서 중추 역할을 할 선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막강한 힘으로 러닝 공격을 막아내고, 상대편 가드의 포켓을 무너뜨릴 선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브라운은 이 역할을 위해 선택된 선수다.



올해 4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탐 브래디(사진 오른쪽)를 대신해 지미 거라폴로(사진 왼쪽)가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RB Dion Lewis

어떤 이들은 디온 루이스가 이미 작년 NFL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할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한다. 물론 시즌 중반에 무릎 십자 인대가 과열되는 큰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말이다. 그러나 올해 루이스는 처음으로 시즌 전체를 소화하며 주전 러닝백으로 될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루이스는 작년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패트리어츠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5시즌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못했지만,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은 루이스는 가장 다이나믹한 러닝백으로 변모했다.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루이스는 NFL에서 가장 뛰어난 러닝백

이 될 수 있다.

루이스는 파워 러닝백은 아니지만 빠른 스피드와 유연한 몸놀림, 패스 캐칭 능력 등을 바탕으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러닝백이다. 재할 훈련이 잘 마무리 된다면 올해 루이스는 NFL 최고 러닝백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강정호 10호 · 추신수 2호포...김현수 멀티히트 활약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고지를 밟았다.

강정호는 2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벌어진 2016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14일 뉴욕 메츠전 이후 일주일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한 강정호는 시즌 10호 홈런을 작성하며 지난 시즌(15홈런)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최희섭, 추신수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최희섭은 2004~2005년, 추신수는 2008~2010, 2012~2015 시즌에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

이날 홈런으로 유일한 안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 1도루로 경기를 마감했다. 시즌 타율은 0.276를 그대로 유지했다.

첫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난 강정호는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선발 제프 사마자 공략에 성공했다.

5-1로 앞선 3회말 선두타자로 등장한 강정호는 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상대 선발 제프 사마자의 3구째 88마일(약 142km)짜리 슬라이더를 밀어쳐 가운데 담장

을 넘겼다. 홈런 비거리는 422피트(약 128m)였다.

강정호는 5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는 무사 1,2루 찬스에서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다.

7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는 3루수 강습타구로 2루까지 향했지만 수비 실책으로 기록돼 아쉬움을 남겼다. 강정호는 후속 타자의 타석에서 3루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강정호의 시즌 2번째 도루.

피츠버그는 끝내 한 점차를 극복하지 못해 6-7로 패했다. 2연패의 피츠버그는 시즌 전적 34승38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추추트레인'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도 홈런포를 가동했다. '친정팀'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8회말 4번째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리는 등 4타석 3타수 1안타(1홈런) 2득점 1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20이 됐다.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없이 볼넷만 한 개 기록했던 추신수는 5-4로 추격당한 8회말 선두타자로 들어섰다.

상대 투수 좌완 토니 싱그라니는 추신수가 신시내티에 있던 시절 한술밥을 먹은 적이 있는 선수였다. 추신수는 풀카운트에서 6구째 95마일(약 155km)짜리 직구를 견어올려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홈런으로 연결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가 2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회말 솔로홈런을 날렸다

6-4로 달아나는 귀중한 홈런이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MLB.com)에 따르면 이 홈런의 비거리는 376피트(약 114m)로 기록됐다.

추신수의 홈런으로 2점차로 리드를 벌인 텍사스는 결국 6-4로 승리했다. 전날 패배를 설욕한 텍사스는 시즌 전적 47승26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자리를 굳게 지켰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28)의 활약도 좋았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장한 김현수는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39가

됐다.

4-2로 앞선 6회말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를 때려냈다. 이 안타로 무사 1,3루가 됐고 볼티모어는 2점을 더 추가했다.

김현수는 계속된 6회말에서도 안타를 기록했다. 2사 2루에서 좌전 적시타를 쳐 시즌 6번째 타점과 함께 시즌 11번째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볼티모어는 5점차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7-2의 승리를 거뒀다.

starburyny@news1.kr

ACN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매지움: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보스톤 장로교회

전덕영 원로목사 추대 및 장성철 목사 위임예배

지난 30년 동안 함께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전덕영 목사님의 은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나눔과 섬김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장성철 담임목사님의 위임예배를
 아뢰와 같이 드려려고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6년 6월 26일 오후 8시
 장소: 보스톤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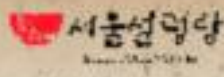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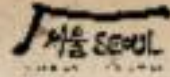


더가고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공방, 보양, 두툼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Fax: 1.866.551.0066



서울 or Deacon St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Fax: 1.800.838.8888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무릎 내 활막 줄기세포, '퇴행성 관절염' 치료 효과 높인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 연세사랑병원' ... 활막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 연구결과 확인, 국제 'BBRC' 학술지에 게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무릎 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연골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성장을 도와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강남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은 연골손상환자에게서 분리해낸 특정한 활막 유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 활막 유래 줄기세포에서 연골세포의 성장을 증가시키는 인자가 분비되며 연골세포의 염증반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무릎관절 내에 있는 활막에서 활막 유래 줄기세포를 추출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공동 배양, 활막 유래 줄기세포가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염증반응 시 발생하는 물질들이 활막 유래 줄기세포에서

인슐린 성장 인자(IGF-1)가 많이 분비됨에 따라 염증 반응이 유도된 연골세포의 사멸이 억제되고 세포 증식이 점차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퇴행성관절염 환자 무릎에 존재하는 활막 유래 줄기세포에서 인슐린 성장 인자(IGF-1)가 분비되면서 연골세포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세포 증식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 관절염 환자에서 무릎관절 내에 있는 활막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구하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행성관절염은 한번 손상되면 자체 회복이 어려운 연골의 특성 때문에 손상이 적은 초·중기에 발견해 치료

해야 자기 관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특히 연골을 회복시키고 자기관절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방법으로 몸속 지방, 골수, 제대혈 등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초 및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릎관절 내에 있는 활막조직에서 추출한 활막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관절염 치료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의 무릎관절 내에는 활막 유래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나 연골관과열이나 연골손상, 인대손상,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무릎내에서 활막 유래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활막 유래 줄기세포는 자신의 무릎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타 조직 중간엽 줄기세포에 비해 뛰어난 연골분화능력을 보이고, 적은 양의 조직에서 충분한 줄기세포를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퇴행성관절염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인간 활막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나이트로프루사이드 나트륨의 자극에 의한 연골세포의 공동배양을 통한 염증반응 억제와 세포 증식률의 증가'를 주제로, 2014년 4월호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미국 의과학학술지 'BBRC' 논문으로 게재된 바 있다.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중년층 무릎통증, 무조건 수술이 답? ... 빠른 진단이 핵심

무릎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관절수술을 떠올리곤 한다. 이 치료법은 무릎관절 자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로 오랜 역사를 갖는 만큼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치료법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퇴행성관절염 치료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약이나 주사로 통증을 참고 버티다가 질환 말기가 돼야 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꼭 인공관절수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한 치료법들이 발전하고 있다. 권오룡 강남 연세사랑 병원 원장은 "퇴행성관절염은 한 번 손상되면 자체 회복이 어려운 연골 특성상 치료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는 관절내시경, 연골재생술, 환다리고 정술 등으로 자기관절을 오래 보

존하면서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이라고 하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떠올린다. 위내시경처럼 관절에도 내시경을 삽입해 관절 내부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도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8배 이상 확대 가능한 초소형카메라가 부착된 내시경을 관절 내부에 삽입하면 연골 상태, 인대 손상 여부, 뼈 마모 정도 등을 체크할 수 있다. 기존 치료법과 달리 5~10mm만 절개한 뒤 수술하므로 환자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내시경으로 연골 상태를 확인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다듬은 뒤 연골재생술을 병행하면 자기관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퇴행성관절염, 반월상연골판 손상, 십자인대과열, 골절 등 광범위한 관절질환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무릎은 물론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 수술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강남 연세사랑병원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병원 김용상 진료부장이 세포치료연구소에서 현미경을 통해 줄기세포를 살펴보고 있다

고국병문 김신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T.617-955-9112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해!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이비인후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업술)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질개쌍꺼풀	매몰쌍꺼풀	얼굴지방이식 (PRP포함)	코성형
770만원	880만원	220만원	220만원	198만원	110만원	275만원	330만원
550만원	660만원	132만원	132만원	121만원	88만원	165만원	264만원

부가세(VAT) 포함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티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컬 케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각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율/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인간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아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978-844-2404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781-4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롭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산인감리교회	401-739-8439
사도교회	978-534-3394
시온교회	617-620-3352
열방교회	978-274-2369
에이더 벨렘교회	413-549-6495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9200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위마뉴엘 연합교회	978-514-3399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650
뉴비즈 헤어살롱	978-239-0141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순옥유니부동산	508-734-044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플러스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멘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븐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퍼트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상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켄지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병원(병리)	203-330-8080</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청소하실 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T. 617-504-828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가사 도우미 구함
오전 10:30에서 오후 5:30까지
일하실 가사도우미 급히 구함.
음식 잘 만드시는 선호.
캠브리지 하버드 스트리트.
T.929-232-0319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포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살살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BC, SBS, KBS, MBC, OCN, etc.



공유부터 마동석까지... '부산행' 감염자들과의 사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올 여름 극장가를 강타할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이 전 대미문의 재난 상황 속 생존을 위한 주인공들의 치열한 사투를 담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7월 20일 개봉하는 영화 '부산행'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다.

이번에 공개된 '부산행'의 메인 예고편은 대한민국을 뒤덮은 재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극한의 사투를 담아내 눈길을 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사투", "끝까지 살아남아라"라는 강렬한 카피가 어우러져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여기에 이수라장이 된 재난 속에서 감염자들과 맞서 싸우는 캐릭터들의 모습은 생존을 위한 치열함과 비장함마저 보인다. 이렇듯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배우들의 열연과 영화 속 압도적인 스케일, 그리고 완벽한 비주얼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까지 선사할 것이다.

한편 '부산행'은 제작보고회 이후 폭발적인 반응으로 온라인을 평정하며 단연 7월 최고의 화제 작업을 입증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호화 배우 군단, 전세계를 사로잡은 비주얼 마스터 연상호 감독, 그리고 천만 관객을 이끈 제작진의 합류로 이미 뜨거운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뷰티풀 마인드' 미스터리+메디컬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뷰티풀 마인드'가 첫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미스터리 메디컬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지난 20일 밤 10시 첫 방송된 KBS 새 월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극본 김태희/ 연출 모완일 이재훈) 1회에서는 의문의 사고로 얽히게 된 계진성(박소담 분)과 이영오(장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계진성은 의도적으로 차에 치인 듯한 강철민(이동규 분)의 사고를 목격, 살인 사건임을 직감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실려온 강철민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의사 현석주(윤현민 분)와 가망이 없음을 판단한 이영오(장혁 분)의 대립으로 더욱 흥미로운 전개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결국 강철민은 수술 중 사망했고 환자의 죽음에도 조금의 동요조차 없는 이영오의 태도는 보는 이들을 기함케 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에 오열하는 아들 동준(방대한 분)이 청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대목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며 슬픔을 배가시켰다는 반응이다.

또한 살인 사건임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강철민의 시신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눈치챈 계진성이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들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최고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방송 말미 겁에 질린 계진성의 가슴에 메스를 쬐는 이영오의 엔딩은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는 스틸과 흥미진진함의 조화를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1회부터 등장한 살인사건과 이를 둘러싼 캐릭터들의 각개분투는 다음 방송을 향한 구미를 더욱 자극했다. 때문에 '뷰티풀 마인드'가 앞으로 어떤 예측 불허의 구성력으로 안방극장에 신선한 묘미를 안길지 기대되고 있다.

nahee126@news1.kr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 호평 일색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전 예매 사이트 및 극장 사이트 예매율 1위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에 대한 시사회 반응이 뜨겁다. 개봉 전일 진행된 언론시사회와 대규모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호평을 남겨 눈길을 끈다.

22일 개봉한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를 본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앞서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는 IMAX, 슈퍼플렉스G, 3D, 4DX 등 다양한 상영 포맷으로 시사회를 진행했고, 예비 관객들이 일찌감치 몰려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입증했다.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를 보고 나온 언론과 관객은 "올 여름 최고의 오락 블록버스터가 탄생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2', '투모로우' 등에서 선보여왔던 톨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장기가 이번 영화에서 더욱 극대화 된 점도 긍정적인 리뷰로 작용했다.

언론 매체에서는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가 20년 만에 성공을 다시 이뤄낼 것으로 예측했다. 관객들은 지구가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우주에 매쳐지는 신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4DX 상영관에서는 전세계 랜드마크를 활공하는 공중신으로 마치 놀이공원 같은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한편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는 20년 전 외계의 침공으로 인류의 절반을 잃고, 재건에 힘쓴 지구에 다시 찾아온 멸망의 위기를 그린 SF 재난 블록버스터다.

aluem_chang@news1.kr

'김민희 불륜설'이 '아가씨' 흥행에 끼치는 영향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 불륜설에 휘말려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김민희가 출연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터라 일부 관계자는 흥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했으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22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가씨'는 지난 21일 전국에서 5만 4746명의 관객을 동원,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381만 8672명을 기록했다.

지난 20일에는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지만 김민희 불륜설이 터진 뒤 박스오피스가 한계단 올라선 2위에 등극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아가씨'에서 김민희가 맡은 역할이 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과 결부돼 더욱 큰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영화에서 김민희는 과격적인 베드신을 선보였고, 백작과 하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극에 긴장감을 선사한다. 또 부서질 듯 여러면에서도 지독하게 사악한 양면성을 지닌 아가씨 히데코를 완벽하게 연기해 호평 받았다.



불륜설이라는 다소 지저분한 루머에 휩싸인 배우가 한없이 맑은 순애보를 연기하거나 가슴 저릿한 멜로 영화에 출연했다면 관객들의 발길이 끊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무리 "연기는 연기"라지만 극에 몰입하기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그러나 '아가씨'는 다행스럽게(?) 여주인공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만을 비추는 영화가 아니라서 영향을 덜 받지 않았겠냐는 것이 영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6월 13일 ~ 2016년 6월 19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7.2%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1.4%
3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9.6%
4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8.0%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6.7%
6	KBS1	KBS9시뉴스	16.6%
7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3.1%
8	SBS	주말특별기획(미녀공심이)	13.1%
9	MBC	무한도전	13.1%
10	KBS1	전국노래자랑	12.9%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4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5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6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7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8	tN	디어마이프렌즈
9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0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02	CHEER UP	TWICE
03	GOOD (Feat. ELO)	로꼬, GRAY
04	쏘쏘	백아연
05	Monster	EXO
06	자격지심 (Feat. 은하 Of 여자친구)	박경 (블락비)
07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08	달고나	San E
09	니가 알던 내가 아냐 (Prod. By GRAY)	사이먼 도미닉
10	D (half moon) (Feat. 개코)	DEAN

숫자 퍼즐 (Sudoku)

	3		1	6				
						9	4	1
7					8	3		
4			2	8				
		3	4		9	8		
				1	7			2
		1	6					8
3	4	8						
				7	3		5	

6월 26일 - 7월 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긍정적인 생각으로</p> <p>● 운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미리 앞서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대처해나가는 현명합니다. ● 금전: 과감한 투자나 매매 등에 있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 애정: 주위에서 그 어떤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7,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소띠 밝아오는 새벽이</p> <p>● 운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아오는 새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 금전: 금전운은 호전될 것입니다. 참고 견딜 줄 아는 인내심으로 버텨야 합니다. ● 애정: 미혼남녀는 결혼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면 손해를 보지만 겸손하게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8, 2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범띠 씨앗이 열매를 맺어</p> <p>● 운수: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추수하여 건어 들이는 가을의 시기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금전: 금전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유리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애정: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6, 29일 길일, 28, 1일 주의.</p>
<p>토끼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피를 못 잡고</p> <p>● 운수: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강하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있지 않군요. 힘만 들고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금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손해이니 변동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 애정: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다 거슬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7, 30일 길일, 29, 2일 주의.</p>	<p>용띠 한 마리 토끼만을</p> <p>● 운수: 반복되는 생활의 속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결과가 좋습니다. ● 애정: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복잡한 이성 관계는 즉시 정리하고 한 마리 토끼만 쫓아가도록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3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뱀띠 시대감각에 맞는</p> <p>● 운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 금전: 경제 운이 왕성해집니다. 이득이 있어도 돈을 빌려주거나 뭔가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외로웠던 사람에게 좋은 훈제가 들어옵니다. 주말에는 멋진 데이트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29, 2일 길일, 28, 1일 주의.</p>
<p>말띠 눈 녹기를 기다려야</p> <p>● 운수: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이 관련된 일로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서지 말고 경솔한 판단으로 수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눈 속에 쌓인 초목의 색이 눈 녹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30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양띠 순조로운 시기여서</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하도록 합니다. 주위와의 융화나 협조를 구하기에 순조로운 시기여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따르게 됩니다. ● 애정: 부부간의 애정이 뜨겁게 되 살아납니다. 자녀로 인해서 기쁜 일도 생기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원숭이띠 밝은 희망이 보이고</p> <p>● 운수: 사업상으로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면서 차츰 밝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 금전: 급하게 자금 운용을 하게 되나 잘 해결되지 않아서 다소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만남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2일 길일, 26, 28일 주의.</p>
<p>닭띠 솔직한 인상을</p> <p>● 운수: 그동안 추진하던 일의 방향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자세로 나가면 순조로울 것입니다. ● 금전: 상대에게 솔직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합니다. 진실한 모습이 거래관계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애정: 이성에게 매력적인 끌림을 주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개띠 조금씩 호전되면서</p> <p>● 운수: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이 생길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생활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 애정: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니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고부간의 문제가 급기야는 부부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돼지띠 새로운 가능성을</p> <p>● 운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취업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 계약이전 등 변화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야 이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한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애정 어린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30일 길일, 27, 1일 주의.</p>



씨스타 'I like That' 공개 차트 1위 올킬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씨스타가 신곡을 공개했다. 씨스타는 21일 0시 네 번째 미니 앨범 '몰아예'(沒我愛) 전곡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아이 라이크 댓'(I like That)은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서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 '아이 라이크 댓'은 상대가 나쁜 남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빠져드는, 사랑에 홀린 여자의 모습

적인 마음을 표현한 댄스곡. 'Touch My Body'를 작업한 히트 작곡가팀 블랙아이드필승이 프로듀싱을 맡은 곡으로, 강렬한 브라스와 매혹적인 보컬, 솔직한 스토리텔링을 담은 가사가 인상적이다. 앨범은 댄스, 알앤비, 발라드까지 여러 장르를 섭렵하며 듣기 편한 팝 음악의 전형을 들려준다. 종합선물 세트 같은 구성임에도 산만하게 들

리지 않는다는 멤버간 뛰어난 보컬의 조화가 큰 역할을 한다. 블랙아이드필승, 이단옆차기, 로빈, 에스비 등 개성 강한 뮤지션과의 협업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여기에 효린은 'Say I Love You' 란 곡을 통해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서의 역량 또한 드러냈다. reddgreen35@news1.kr

릴레이툰... '무한도전' 하하X기안84 베일 벗는 30년 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에서 드디어 '릴레이툰'의 첫 회가 공개된다. 최근 스타 웹툰 작가들과 MBC '무한도전' 멤버들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눈길을 끈 '릴레이툰'은 두 사람씩 짝을 이뤄 스토리를 구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를 모았다. 하하와 기안84가 선발주자로 나선 '릴레이툰'은 양세형과 이말년, 정준하

와 가스파드, 유재석과 무적핑크, 광희와 윤태호, 박명수와 주호민 순으로 연재된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 중인 작가들과 천차만별의 그림 실력을 갖고 있는 '무한도전' 멤버들의 웹툰이 각각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며 연결될지 역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aluem_chang@news1.kr

하현우, '라디오스타'에서 '복면가왕' 뒷얘기 고백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오늘(22일) 방송될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탁..탁.. 탁월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특징으로 하현우-데이-효린-한동근이 출연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하현우는 '복면가왕' 출연 이후 바뀐 생활에 대해 "음악대장을 사랑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특히 하현우는 음악대장이 아닌 '골목대장' 같았던 군대 생활기를 공개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그는 "그게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더라구요

"라고 말하며 당시 군대에서 후임과 함께 했던 '돌직구 랩'과 '영풍 댄스'까지 선보여 스튜디오를 폭소케 만들었다. 또한 하현우는 자신만의 독특한 피부관리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uu84@news1.kr

최근 스타 웹툰 작가들과 MBC '무한도전' 멤버들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눈길을 끈 '릴레이툰'은 두 사람씩 짝을 이뤄 스토리를 구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를 모았다. 하하와 기안84가 선발주자로 나선 '릴레이툰'은 양세형과 이말년, 정준하



천지보설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Korean speaker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is a leading food wholesaler delivering sushi related products to restaurants throughout New England. We ar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s and need a rep who can speak Korean, but who is also competent in English. The job starts at 6am Monday through Friday (work a half day every other Saturday). Need to maintain customer accounts and opening new accounts, visiting customers. Should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with a relatively clean driving record, adequate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and familiarity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would be a plus.

Compensation will be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abilities. Benefit package and/or green card sponsorship may be availa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정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닥터스' 성장기 담은 휴먼 메디컬 드라마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SBS '닥터스'가 치열한 의사들의 세계 속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20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는 의사들의 세계를 다루며 그 중심에 있는 주인공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가 그려진다.

경쟁이 있지만 그로 인한 성장이 우선시되며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다. '닥터스'를 연출하는 오충환 감독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담은 드라마다. 만남의

공간이 병원인 것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금 삭막할 수 있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 성장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아이가 다섯
2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SBS	사랑이 오네요
4	KBS	별난가족
5	MBC	다시시작해
6	SBS	당신은 선물
7	MBC	좋은사람
8	CJ E&M	디어마이프렌즈
9	KBS	가화만사성
10	MBC	옥중화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신규 방송

1	CJ E&M	38 사기동대
---	--------	---------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최신 영화

1	계춘할망	윤여정, 김고은
---	------	----------

'계춘할망' 김고은 "출연 계기? 시나리오 보고 펑펑 울었다"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김고은이 '계춘할망' 출연 계기를 밝혔다. 김고은은 "처음에 초반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제목 때문에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망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나리오를 보게 됐는데 본 자리에서 펑펑 울고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것 같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헤지의 감성과 감정선이 직접 경험했던 감정선이어서 가장 공감이 됐다"고 털어놨다. 김고은은 '계춘할망'에서 불량 소녀 헤지 역을 맡았다. 헤지는 7세에 할머니와 헤어진 뒤 12년 만에 기적처럼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19세 인물이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권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 1. Full Plant 풀리너 + 백싱턴에 위치, 부동산 교활 \$1,39M **SOLD**
- 2. Full Plant 세막스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막스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공부** 4. Full Plant 세막스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5. 드림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6. 드림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인근 일터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8. 렌트 : 701 Harvar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altham **SOLD**
- 10. Condo : 20 Hesser st, unit 1, Win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33-35 Baker St., Boston **SOLD**
- 12. 비빌 시골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3 Full Bath, 3,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 14. Condo : 47 Hess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NEW LISTINGS



콘도 세일

47 Gorham St, Unit 1 Allston
2 Bed 1 Full bath, 좋은 위치,
2017년 마감까지 리스 있음.

UNDER AGREEMENT



렌트

12-18 Ellery St, Unit 600 Cambridge
2 Bed 2 Full bath, 하비드 eq. 세차 공간
Rent include heat, hot water,
car removal, one assigned parking.
8월 1일 입주 가능.

월 \$3,000

NEW LISTINGS

First open house
6/10, 6/11 Sat & Sun 1pm to 2:30pm.

Single Family

6 Sleep Way Estate
4Bed 2.5Bath 3,000 sq. ft. 1.7 Acre
Out-door lot,
Asking **\$1,159,9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Price Reduced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막스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Price Reduced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51회

'감정일기' 쓰기 훈련을 통한 내적치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하는 일은 즐겁다. 하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그 어떤 새로운 공부를 찾아 시작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두 달 전부터 시작한 공감 소통 대화법을 시작으로 내적 치유의 공부를 하고 있다. 교회의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리더가 되어 몇 그룹(여덟 명)이 매주 만나 3시간 정도 서로 한 주간의 감정과 그 감정의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을 표현(감정일기)하며 나누는 것이다.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모이는 모임이니만큼 서로 배려하는 모습에서부터 다른 모임과는 다른 마음의 자세부터 챙기게 된다.

처음 시작은 그랬다. 작은 수첩에 자신의 '미세한 감정'을 짧게 기록하는 연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쉬울 리가 없다. 하지만 잊으면 잊은 대로 생각나는 감정들을 하나둘 메모하기 시작했다. 가족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그 밖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났던 내 감정의 변화를 의식도 하지 않은 채 울컥 화난 얼굴을 하고 있었거나 도망쳐버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던가. 그렇게 그 감정을 다

스리지 못해 남은 감정의 찌꺼기로 나 자신의 못남을 탓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서운했던 마음과 섭섭했던 마음이 커지면 미움이 되기도 했던 감정들 말이다.

사람마다의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상대방 에겐 아주 큰 아픔이 되어 상처로 남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관계에서든 나 자신의 감정 표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감정일기 쓰기의 장점이라면 내 속의 것을 끄집어내 바라보라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나 그 어떤 일 앞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버럭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미세 감정을 써야할 이유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에 의하여 우리는 자신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며 양육을 받았어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에 자신의 감정을 읽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들겠지만 미세 감정을 써 가면서 자신의 숨어 있는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인정해 주면서 건강한 자아로 성숙해 감이 중요하다.

사람은 일상 속에서 타격을 받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 섬세한 감정은 타인이 만져 주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감정을 자신이 만져주는 방법 중 하나가 미세감정을 쓰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의식하고 불편한 감정이 떠오를 때면 격려하고 만져주는 치료 방법이다. 우리의 감정도 인격의 한부분이므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감정을 마구잡이로 억누르거나, 또 무조건 펼치기만 하면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어 재앙이 된다."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 박승호 목사>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다. 내가 나의 미세한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내 감정을 인정해주면 화나고 억울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감정은 풀어지기 시작한다. 나 자신이 내 속에서 요동치며 발버둥 치는 감정을 참으려는 마음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기에 더 큰 감정의 폭발을 불러오는 것이다. 미세한 감정의 요동침과 출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메모장에 적는 습관과 훈련을 시작해 보자.

이렇게 수첩에 기록한 메모들을 모아 자신의 감정일기를 쓰기 시작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훈련이 되지 않아 어색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허락되는 데로 메모장에 적힌 미세 감정들이 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 자연스럽게 감정일기 쓰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의 요동치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를 것이고 수면에 깊이 잠들던 내 묵은 감정들마저도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감정 하나하나를 '감정일기'를 쓰면서 풀어내는 작업이 바로 내적치유인 것이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초여름 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락에 까지 울음이 맺히고, 가족을 하늘로 생각하는 그렇지요. 복이 많은 이땅의 아낙이요.'

옛적엔 아이를 낳을 적에 산파가 동원되었다. 산부인과 병원에 가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다. 산파를 부를 수 없을 적엔, 집에서 혼자

소나기 한줄기 지났나보다 차가 갑자기 분 물이 무서워 머뭇거리는 동구 앞 허연 허벅지를 내놓은 젊은 아낙 철병대며 물을 건너고 산뜻하게 머리를 감은 버드나무가 비릿한 살냄새를 풍기고 있다 (신경림, 여름날)

다. 그게 벌써 이십년 가까이 됐다. 그때 티비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 봤다. 검게 그을린 종아리는 굵었고 강인해 보였다. 진정한 미녀의 다리 모습 아니던가. 역시 박세리는 강했고, 튼튼했으며, 장한 국민 여동생이고 아낙이었다. 그런데 박세리는 시집갔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한동안 산아 제한이네 뭐네 하더니, 세월이 바뀌어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젠 아이를 낳으라 독려한다. 하지만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단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왜간해야 말이지.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인생이 덜 바쁜건 아닐게다. 인생에서 세월은 어느 시기건 누구에게건, 진공으로 남겨 두지 않으니 말이다. 그게 먼지바람이건, 꽃바람이건 채워지게 마련이다. 바람이 분다. 버드나무 냄새가 난다.

(이 그림은 인터넷에 떠도는 흑백사진을 모사했음을 밝힌다. 사진작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삼성노트 스마트폰으로 그렸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나라 (누가복음 2:19)

정녕 여름이다. 싱그러운 냄새가 진동한다. 지난 봄에 태어난 오리 새끼들도 무럭무럭 자란다. 여름은 모든 새끼들을 기른다. 자연의 신비함일 진저.

아낙네란 말을 사전에서 다시 찾았다. '남의 집 부녀자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네이버 국어사전). 통속적인 말이라 그런가. 유행가에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내게는 꽤 정감어린 말이다. 소설 토지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심하게 각색했다.

'아낙이 글을 배웠다면, 시인이 됐을 것이요. 붓을 쥐어 주었다면, 사임당 신씨가 되었을 터. 남자로 태어나, 말을 타고 창을 들었다면 앞장섰을 게고, 부모묘소에 벌초 할때마다 머리카

자 놓아야 했다. 이 이야기는 내 어머니에게 들었다. 산일이 가까운 아낙도 농번기엔 밭에 김을 매러 가야 했단다. 일을 마친 늦은 오후, 아낙이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돌아온단다. 일하는 중에, 산기를 느꼈을 것이고, 나무 그늘에 찾아앉아 혼자 아이를 낳은 거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넘어갔다. '집에 돌아온 아낙은 아이를 뉘여 놓고, 소죽을 끓인다.' 산후조리니 뭐 이런것 없는 거다. 아, '조선의 아낙' 이어.

신경림 시인의 시이다. 여름날이다. 푸르고 싱그럽다.

버스에 앉아 잠시 조는 사이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이후 가임,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 선두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관리까지 전문외과 전문에 직접 참여하여 최상의 직접 진료 시스템 운영
- 철저 안전관리 시스템 — 모든 수술 전 과정에 철저 관리하여 안전하게 회복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실행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수술 후에는 지속적인 경과관리와 재수술을 위한 빠른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 선진적인 연구 활동 및 전문적인 학습활동으로 세계 각국이 인정 받은 최상급 의료로 교육 및 진료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HOT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김지수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1989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취득
1992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5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98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2001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2004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2007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2010년 미국 미시간주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몰
132만원
→ **90**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 **20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 **280**만원

* 부가세 별도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비유외 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가게오동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6. 기숙학교를 통한 인디언 동화정책 (2)

칼라일 인디언산업학교(Carlisle Indian Industrial School) (계속)

프래트는 인디언학생들을 백인 문화에 흠뻑 젖게 만들어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부족민들에게 이들이 배운 것을 전파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인디언들이 백인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학교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의 경우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겪었다. 일부 부족민들은 신식교육을 받고 온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백인으로 변해버렸다고 비난까지 하였다.



〈칼라일 인디언산업학교(Carlisle Indian Industrial School)〉

칼라일 인디언학교가 근대 인디언 역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인디언의 허브공항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어떤 이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지브롤터(Gibraltar)로 비유했다. 1911년 최초의 전국적인 인디언 모임인 미국인디언협회(The So-

ciety of American Indians)도 칼라일학교를 고리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 협회는 50명의 인디언 선각자들로 구성되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이 학교에서 배웠거나 가르쳤던 지식인들이었다.

미국정부는 가능한 한 가장 늦게까지 미국에 저항한 부족의 자녀들을 많이 입학시키기를 원했다. 자녀를 학교에 수용하면 인디언의 반란을 예방할 수 있는 볼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수 족이 제일 먼저 접촉 대상으로 선정됐다. 카스터 장군 부대가 전멸한 리틀 빅혼 강 전투가 있던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도 적대 감정이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프래트는 내심 망설였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우수 족 마을을 찾아갔다. 먼저 1878년 11월에 로즈버드(Rosebud)인디언보호구역으로 가서 브를레지파의 점무늬 꼬리(Spotted Tail)를 만나 설득하여 그의 자녀를 칼라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브를레 주장은 프래트의 논리 정연한 권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프래트는 “인디언들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설픈 통역의 말만 믿고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본의와 달리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자녀들은 정식 교육을 받아서 백인들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프래트는 파인릿지

인디언보호구역(Pine Ridge Indian Reservation)으로 가서 오글라라 지파의 추장들로부터도 자녀들을 칼라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프래트는 인디언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하여 추장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붉은 구름(Red Cloud)을 포함하여 40명의 우수 족 어른들이 1880년 6월에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1886년 9월에 제로니모가 투항한 후 수많은 아파치 인디언들은 전쟁포로로 취급되어 플로리다의 감옥에 수감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칼라일학교로 보내졌다.

인디언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우선 인디언식 담요의복을 벗겨 서양식 복장으로 바꾸고 머리카락도 자른 후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다 바꾸어 인디언의 말은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영어만 쓰도록 하였다. 영어를 빨리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부족출신 학생은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조정했다. 수학기간은 5년이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정부나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서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라 결핵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생명을 잃었다. 이 학교에서는 캐나다 지역 기숙학교에서 만연했던 신체적 성적 학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칼라일 학교 입학대상은 14세 이상으로서 인디언의 피가 4분의 1

이상이 섞인 인디언으로 제한하였다.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영어와 수학 등 일반적인 교과목 외에 상업과 기술 등 산업실무교육도 병행하였으며 체육, 미술, 음악 등의 분야에서도 우수한 교원들을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마치 백인들이 하버나 예일로 진학하고 싶어 하듯이 많은 인디언들이 자녀들을 칼라일로 보내기를 희망하였다. 칼라일 시에는 전통적인 명문 대학인 디킨슨 대학(Dickinson College)이 있었는데 이 대학의 교수진들이 칼라일 인디언 학교를 크게 도왔다고 한다.

이 학교의 미식축구부(‘Carlisle Indians’로 불림)는 최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하였다고 하는데, 웨스트포인트와의 경기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칼라일 학생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인디언 전사로서 또 웨스트포인트 학생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미군 장교로서 1850년대부터 1890년 운디니 사건까지의 기간 동안 서로 죽이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 1912년 11월 9일 벌어진 웨스트포인트와의 경기에서 소프 선수와 워너 감독의 활약에 힘입어 칼라일이 27대6으로 이긴 사건은 매우 재미있는 일화로 소개되고 있다. 훗날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라인배커(linebacker) 포지션 선수로서 그 경기에서 뛰었다고 한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36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진흥왕은 평소에도 사도思道왕후를 사랑하여 그 아들 동륜銅輪을 태자로 삼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르러 숙명후는 이 화랑공과 더불어 서로 정을 통함이 더욱 심하여졌고, 여러번 왕에게 들켰다. 왕이 왕후를 폐하려 하자, 태후가 울면서 간하여 이를 수 없었다. 왕이 숙명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숙명은 스스로 임신을 했다. 이에 공과 더불어 도망하여 나갔다. 군신群臣들이 태자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을 했다. 이에 동륜공을 태자로 삼았다. 공은 비록 죄가 있으나 태후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도리어 동륜공에게는 하나의 행운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왕후가 왕에게 권하여 힘써 보호하여 태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드디어 숙명에게 허락하여 부부가 되게 했다. 이에 원광圓光과 보리菩利를 낳았으니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지소태후는 자신의 딸 숙명공주를 아들 진흥왕의 비로 드려서 ‘진골정통’으로 인맥姻脈을 이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숙명으로 하여금 진흥왕에 관한 모든 일상의 시중을 관리하게 함은 물론 침전을 돌보아 왕을 모시게 했다

. 하지만 진흥왕은 이부동모異父同母의 누이 숙명을 왕후로 맞아드리느걸 꺼렸다. 진흥왕은 어릴때부터 숙명이 궁에서 자라는 것을 보며 같이 컸다. 진흥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의 섭정에 휘둘러 왔기에 강한 여성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숙명은 어머니를 닮아 고집이 세고 이기심이 강하였다. 그래서 동북의 누이와 같이 잠자리를 가지는것 역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소태후의 강권으로 숙명은 왕후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위화랑에게 시집 온 자비왕의 외손녀, 미색美色의 준실부인은 곧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이가 이화랑이다. 준실은 처음에 범흥왕의 후궁이었으나 범흥왕이 그녀를 위화랑과 혼인시켰다. 이렇게 태어난 이화랑은 아름답고 총명하였으며 문무를 겸비하여 지소태후가 총애하였다. 나중에는 지소의 명으로 황화, 숙명, 송화 공주들에게 시문과 화랑의 덕목을 가르쳤다. 이런가운데 숙명은 이화랑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고 둘은 그만 정을 통하고 말았다.

한편 이화랑과 숙명의 관계를 꿈에도 몰랐던 지소태후는 숙명을 진흥왕의 왕비로 삼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진흥왕은 동북의 누이

기도 하지만 숙명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 왕비로 드리려고 하는걸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숙명을 멀리 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 지소태후의 강권도 있지만 숙명의 아버지 태종공 역시 상상上相의 자리에서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머니 지소와 상상 태종공의 미움을 살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하수 없이 숙명을 가까이 하였고,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숙명공주 또한 진흥왕과 사랑도 없이 몸을 섞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화랑과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어쩌면 성격 뿐만 아니라 문란紊亂한 성취향까지 어머니 지소태후를 닮았다. 아들(정숙태자)을 낳은 숙명은 왕후로 봉해지자 그녀의 자만심은 더 강해졌다. 방자한 숙명은 왕이나 태후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화랑과 이어지는 상통은 밤낮의 구별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되는 통정은 결국 진흥왕의 눈에 들어오고야 말았다. 우연히 보게 된 그들의 통정으로 놀라긴 했으나 어차피 숙명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진흥왕은 배신감은 없었지만 다만 왕후의 지위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에 노했는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화랑을 향한 숙명의 열정은 도를 더해 갔고 어느새 왕궁의 시중

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진흥왕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래서 왕후를 폐하기로 결심하고 모후 지소태후에게 말하니 지소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지소태후는 눈물을 흘리며 숙명을 용서하라고 청원했다. 그의 눈물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지소의 눈물은 사랑하는 딸의 폐비를 막고자 함이며, 총애하는 신하 이화랑이 자신을 배반하고 아끼는 딸과 통정한데 대한 상심의 눈물이었다. 둘다 쉽게 내칠 수 없는 사랑하는 딸과 연인(침신)이라는 사실이다. 태후의 완곡한 태도에 숙명을 폐비하지 못한 진흥왕은 왕후의 자리에 그냥 두기로 했으나 잠자리는 절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숙명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징후, 그녀가 임신을 했다. 불러오는 배는 태후조차 어쩔 수 없었고 숙명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다시 한 번 왕에게 용서를 빌고 태자를 바라보며 왕후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린다는 신국神國의 골품을 버리고 ‘평범한 아낙’으로 사랑하는 이화랑과 함께 살 것인가? 공주의 신분으로 모든걸 누리고 살아온 그녀, 숙명공주는 사랑받지 못하는 왕후의 자리보다는 신분을 버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느날 깊은 밤 궁을 떠났다.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父 (부)

“땅에 있는 자를 아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And do not call anyone on earth ‘father’, for you have one Father, and He is in heaven.” - 마태복음 23:9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 마태복음 6:8, 9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한(對北韓) 제재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는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 예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을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우리를 뒤흔들거나 국제협력 체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감히 갖지 못하도록 우리군은 보다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군(軍)은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바로 강력하게 응징해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북한이 22일 잇따라 쏘아 올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 에 대해 기술적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북은 7차 당대회 전인 4월 중순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47기의 무수단을 발사했지만 모두 중도 폭발로 끝났는데 22일 발사된 5호 무수단이 150Km를 날아간데 이어 6호는 400Km를 날아갔다. 성패를 가늠하는 최소 비행거리 500Km엔 못 미쳤다해도 발사각도를 올려 고도(高度) 1000Km를 넘긴 것은 성공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이런 도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로 국제사회가 역대 최강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국제제재를 비웃고 어떤 경우에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 해서 핵(核)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미국을 상대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일 것.

이날 우리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

의기로 했다. 물론 상황이 나아질 보장은 없지만 제재의 고통을 더 조이면서 북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설득과 압박을 더 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이번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입, 결함을 수정한 다음 시험 발사를 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한마디에 불과 며칠만에 무수단을 쏘아 올리는 비이성적 작태를 벌인셈...

한편 중국의 『시진핑의 눈에 비친 한반도(韓半島)』는 “꼴치 아프다” 다.

이달 초 조선노동당 중앙위 리수용 부위원장이 베이징(北京)을 다녀갔다.

시진핑은 리수용 부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핵-경제 병진 노선만 되풀이 했다.

조선의 젊은 지도자는 한국전쟁 때 90만명을 희생한 우리의 체면을 세워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김정은은 2013년초 나(시진핑)의 주석직 취임직전 3차 핵실험으로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

지난해에는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막으려 했다. 이런 인물을 베이징에 초대할 수 있겠는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가진 카드로 조선의 숨통을 조이고 싶을 때도 있다. 식량과 에너지를 1년만 끊으면 조선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조선(북한을 포함)에서 대규모 소요나 무정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군부가 제2의 연평도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한미연합군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다.

미군이 휴전선을 넘으면 나는 장백산의 인민해방군을 조선에 보낼 수밖에 없다. 작년 7

월 내(시진핑)가 장춘 16집단군을 시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다. 미군을 따라 일본 자위대까지 들어오면 조선반도는 국제전쟁으로 변한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安保)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점. 한국이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통일된 조선반도가 중국적 질서로 복귀하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있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2년 전 서울대에서 말했듯이 나는 한국을 친척으로 대할 것이다. 조선반도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중국 영향권에 있어야 한다. 내가 조선을 다독이고 한국을 끌어안는 이유다. 조선반도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나는 하나로 본다. (이 글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가상한 ‘지해법: 동북아시아 연구소장’ 의 글 -조선일보-)

父부: 生己者생기자 - 아버지 / 美稱男子미칭남자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문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라.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父)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아버지 하나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If you really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 요한복음 14:2-7

父는 “구원(Salvation)은 죽음(死)이 끝이 아니고 ‘영생(永生)’ 의 시작: 여덟 팔 八과 父: 治也 치야 - 다스릴 예” 로 합성 된 글자. 설명하면 내 생명(生命): 땅에 태어나 육체로 사는 생명과 죽은 후에 영혼이 영생하는 “하늘나라 생명이 복합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후생(死後生) 또는 영생(永生)의 길인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된 유일한 길(요한복음 14:6)이심을 강조하신다.

이 영생도(永生道)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요한복음 3:16, 6:33, 10:28, 11:25).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이란 단어 대신 ‘아버지’ 란 말을 쓰신 것은 신적권위(神的權威)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뜻.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父)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면 거짓말.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Underworld, TBO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ADAM

QUENNEVILLE

ROOFING ▼ SIDING ▼ WINDOWS

Serving Boston and Surrounding Areas for over 20 years
 over 10,000 satisfied residential & commercial customers

- ▶ Licensed & Insured
- ▶ Insurance Claims Assistance
- ▶ GAF Master Elite Installer
- ▶ EPDM & TPO Flat Roofs
- ▶ A+ Rating BBB

지난 2015년, 눈과 거대한 우박등을 동반한 극심한 폭풍으로 인해
 여러분 지역의 수천가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많은 가구가 흡오너 보험으로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클레임은 2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무료로 점검(FREE INSPECTION)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 617.833.7419



Surrounding Ourselves the Industry's Best!



Specializing in Insurance Claims:

- ▶ Hail Damage
- ▶ Snow & Ice Damage
- ▶ Wind Damage
- ▶ Roof Leaks



OFFICE: 781.944.8161 | CELL: 617.833.7419
WEB: adamqroofing.com | EMAIL: adamqroofing@gmail.com
100 Tradecenter Dr. Woburn, MA 01801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3)

주식시장 통계와 투자비용

미국 주식시장 1927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수익률은 10.0%입니다. 수익률 10%란 7.2년마다 투자 돈이 2배로 불어납니다. 50만 투자는 7.2년 후 100만 불, 7.2년이 또 지나면 200만 불, 그리고 7.2년 또 지나면 400만 불로 불어납니다. 22년 후 투자 돈이 8배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주식시장이란 대기업 500(S&P 500 Index)개 회사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1926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지수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하루 동안 주식시장이 얼마나 올라갔고 내려갔는지는 계산하지 않고 올라갔으면 '파지티브' 내려갔으면 '네거티브' 로 구분합니다.

주식시장 90년을 하루하루를 보았을 때 주식시장이 '파지티브' 한 적은 54% 그리고 '네거티브' 한 적은 46%였습니다. 일 년씩 보았을 때는 '파지티브' 한 적인 74% 그리고 '네거티브' 한 적은 26%였습니다. 5년 평균은 86%와 14%였습니다. 10년은 94%와 6% 그리고 20년 평균은 '파지티브' 한 적이 100% 그리고 '네거티브' 한 적은 0%였습니다. 결론은 주식시장 어느 시점에 상관없이 20년 이상 투자하면 원금보다 적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그렇다면 20년 동안 눈 감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하는가? 둘째, "내 나이 70인데? 20년 투자? 이미 물 건너간 일 아닌가?"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가 미래에 똑같이 반복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윤곽을 제시해 줍니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젊은 사람은 주식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도 총자산의 반(50%)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하락에도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돈 전부를 일 년에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투자로 투자 실패를 경험하면 투자하고픈 마음이 사라집니다. 정치, 사회, 경제, 환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 30년 수익률 통계를 참고해 봅시다.

1926-1956, 연 수익률 10.77%; 대공황으로 주식시장 80% 폭락, 세계대전 2, 한국전쟁, 4

번의 경제 침체기 경험

1956-1986, 연 수익률 9.63%; 월남전쟁, 대통령 암살, 오일가격 폭등, 물가와 이자율 폭등, 6번의 경제 침체기 경험

1986-2016, 연 수익률 9.99%; 1987년 주식시장 대폭락, 저축은행 파산, 이라크전쟁, 9/11, 기술주 폭락, 금융위기, 3번의 경제 침체기 경험

미국 주식시장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던 20년의 총 수익은 54% 그리고 가장 저조했던 30년의 총 수익은 854%였습니다. 30년 수익률이 가장 적었던 적이 연평균 8%였습니다. 8, 90년대 20년 동안은 거의 18%였습니다. 1982년부터 2012년까지 30년은 10.98%였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느 시점이나 장기간을 놓고 보면 수익률이 10%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투자경비 때문입니다.

투자 경비가 매우 저렴한 인덱스펀드를 최초로 만든 밴가드(Vanguard)그룹의 창시자 존 보글이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알게 모르게 수익의 66% 이상을 투자 경비로 지불한다. (John Bogle says you can save 66%

of your retirement return by doing this, Mitch Tuchman, 5-19-2016, Market Watch)" 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7%라고 가정하면 1불이 50년 후 30불이 됩니다. 투자 비용이 2%라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5%로 떨어지고 같은 기간 1불이 10불로 불어납니다. 수익 30불과 10불의 차이는 무려 66% 감소한 수익입니다. 실제로 일반 투자자는 2%보다 훨씬 많은 투자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뉴어티를 계약하면 높은 수수료(8~10%)와 매년 부과되는 경비(3%)가 있습니다. 재정설계사가 선택한 뮤추얼 펀드에는 수수료(5%)와 펀드비용(1%)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경비는 재정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알지 못합니다.

단 2%의 경비는 수익에서 66%나 감소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경비는 투자수익에 치명적인 수반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장기간 높은 수익률 10%를 만들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는 그저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E.지구 6.25참전 국가 유공자회 회장 강경신

한국전쟁을 후세에 알리자

6.25전쟁 기념일이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금년이 66돌이다. 그 당시 20세에 참전을 했다면 지금 86세로 모두 몸이 불편하시다. 우리들 N.E.지구 6.25참전국가 유공자 회원은 25명에서 지금 10명으로 줄었고 옛날처럼 자주 모이지도 못한다.

북한은 지금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쏘겠다는 오만에 전쟁을 겪지않은 세대를 위하여 6.25전쟁을 돌아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의 비화"의 저자 J. C. Goulden은 책머리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6월 25일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 한반도 전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난 몇달 동안 불발경보에 지친 군인들은 주말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4개 보병사단 38,000명중 삼분의 일은 전방에 있었고 나머지 병력은 38선 후방에 있었는데, 한국 사령부는 6월 24일 농촌 모내기 도우라고 사병들에게 2주간의 휴가를 주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교들은 서울에 새로 생긴 육군본부 장교구락부 낙성식 파티에 가고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다. 6.25 당일 새벽 4시에 북한군 10만 명이상이 소련제 T-34탱크 150대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으로 진격을 해도 한국군에는 탱크에 대항할 무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산 근처에서는 용감한 군인들이 잔등에 폭탄을 지고 탱크 밑에 뛰어 들기도 하고, 탱크에 기어올라가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집어 넣기도 해서 탱크를 부수는 했으나 약 90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와 같이 병력이나 장비 기타 모든 면에서 열세를 면치못하고 한국군은 전면후퇴를 안할 수가 없었다.

당시 종군기자 James UP통신기자는 미국 대사관과 UP 통신본사에 지금 무선 통신으로 전쟁 상황을 알렸다. 강력한 진보 주의적인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있었던 미국의 트루먼대통령과 애치슨 국무장관은 즉각 미군의 개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에게 군의 지휘권을 주었다. 하루 늦은 일요일 오후 3시에 U.N.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북한의 철군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달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격

했다. 이를 시찰한 맥아더 장군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명령했다. 그리고 9월15일에 U.N.군은 인천상륙, 9.28서울 수복, 10월에 평양을 점령했지만 11월에 중공군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에 인민군이 서울을 재점령했고, 3월 4일에 U.N군이 서울을 재탈환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맥아더는 무슨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그해 4월11일에 맥아더장군은 해임되고 릿치웨이 장군이 부임했다. 이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승부도 없이 정전되었고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사망자 15만명, 행방불명자 20만명, 부상자 25만명, 전쟁중 주택의 삼분의일이 파괴되었고,미군 5만 4,246명이 전사하고, 10만 3,28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많은 양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다. 만고의 죄인이 죽어서 명당궁에 안치됐고 공산당원들은 태양처럼 존경한다고 한다. 우리가 잊고 있던 6.25가 미국 땅에서 정전기념일

로 영원히 기리는 날로 자리매김하게 된것은 미하원에서 2009년 7월 21일, 상원에서 24일에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그해 27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선언에서 한국전 용사들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며 이를 선포함으로 "7.27은 "미국의 제2의 현충일이 되었고, 조기를 계양하는 국경기념일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우리들 N.E.6.25참전국가 유공자회는 2005년부터 Remember 7.27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행사를 초출하게나마 해왔는데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이런 기념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다.

지금 북한은 제2의 6.25를 꿈꾸고 있으나, 미국은 6.25전쟁에서 미군이 5만명이상이 전사했어도 원자폭탄을 쓰지않았다. 북한의 장난감같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평화통일 대화에 박수칠때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바란다.

N.E.지구 6.25참전 국가 유공자회 회장 강경신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의 입장

또 미사일발사!! 올해만 6번째!!
22일 새벽 발사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이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로 현존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등을 통해 금지된 북한의 활동을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만 더욱 단호해질 것이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 사회 또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는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다.
이번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국제법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나 위협적 행위를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무모한 도발을 저지른 북한의 경고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에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는 5개주 (메인 (ME) · 뉴햄프셔 (NH) · 버몬트 (VT) · 매사추세츠 (MA) · 로드아일랜드 (RI)) 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무모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6월22일

민주평통보스턴협의회 자문위원 일동



17기 민주평통 부간사 김현주

하나된 통일이지! 다가오는 평화통일! 민주평통이 앞장섭니다. (1)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7기 해외지역회의를 다녀와서

지난 5월 16일~19일, 서울 웨라톤 워커히호텔에서 제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의 미주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 매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민주평통 해외지역 전체회의는 해외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활동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준비된 강연 등을 통해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이다. 이번 미주지역협의회 회의는 미국 15개 협의회 1,300여 명의 자문위원 중 7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첫날부터 잘 짜인 행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등록과 행사안내 등이 순조로웠고 내용 또한 알찼다. 14기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해온 필자로서는 이번 17기는 4번째이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참석은 못했지만 지난 14기 때에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던 바 인지라 "해외지역전체회의" 초보 참석자는 아니었다. 그동안 자문위원을 해오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민주평통은 기수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활동도 해가 갈수록 더욱더 조직적으로 잘 짜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첫째날은 협의회별 소개와 통일문화공연,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환영 만찬이 있었다. 미

리 와 있던 자문위원들도 많았지만, 회의 시작인 첫날 공항에서 곧바로 도착하는 자문위원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2일차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눈빛은 뚜렷했으며 회의장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김기철 미주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훗날 "한반도 통일 시대에 우리가 민주평화통일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위해 소임을 다 했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자고 격려하며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협조하느냐가 통일 논의에서는 아주 중요함"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문위원 여러분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적극 나설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정세와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과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에서 이루어진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라는 통일의 시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제는 "통일이 내일이라도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한반도가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각오로 일하는 마음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박근혜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스스로 문제를 풀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선언을 인용하며 개성공단 중단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인식이 달라졌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배정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업무 보고에서 배정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제17기는 '국민 속으로 선도적 통일준비 추진'이라는 활동목표 아래 통일 정책과 준비에 대한 "국민공감/ 통일준비 환경 구축",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동행/쌍방향 소통과 여론 수렴 내실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는 "국민결집/통일준비" 등을 추진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가정법/이민법]

영주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가정폭력, 참지 마세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가정폭력이란 약혼자나 동거자 혹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은 제 3자가 저지르는 폭력에 비해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폭력에는 신체적인 위해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성관계, 위협이나 고립감을 일으키는 행동, 경제적 혹은 이민 관련 협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과 가정법, 그리고 형사법이 만나는 지점이 이민 관련 협박이 포함된 가정 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외국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영주권 신청을 안 해주겠다고든지, 2년 조건부 영주권의 연장을 못하게 하겠다고든지, 미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등 이민 관련 협박을 하며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영어가 불편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고국에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며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미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정 폭력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 폭력, 성적 학대 혹은 아동 학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배우자는 이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을 가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인의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아닌 그 자녀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폭력을 가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관계로 함께 거주했으며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혼이 영주권만을 위한 결혼은 아니었으며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로펌을 찾은 고객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외국인 남편은 시민권자 부인과의 결혼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인은 조건부 영주권의 연장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으로 끊임없이 남편

을 괴롭혔고, 심지어는 폭력도 수시로 가했습니다. 남편은 여성인 여자를 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심하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고국에 있고 영어가 자유롭지 않으며 미국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고객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우선 고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임시접근금지(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받아 폭력을 저지른 부인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부인의 도움 없이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 이민 문제도 해결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부인은 영어는 전혀 못했고, 주변에 아는 지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인 부인은 시민권자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생각했지만 결혼식만 했을 뿐 법적인 서류는 전혀 등록하지 않아 이 둘은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부인은 시민권자 남자가 "결혼식을 했으니 우리는 결혼을 한거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한

다"고 하는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권자 남자는 예전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권자 남자는 중국인 부인에게 수시로 가정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의 희생자가 된 중국인 부인은 중국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로펌을 찾았고 저희 로펌은 부인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부인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도왔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경우에도 여자분이 실제로 결혼을 했다고 믿었고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부서 소속 변호사

기업 고객

- 국지법
- 국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피해
- 상법
- 세금, 상속, 유언
- 수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1

Song law firm LLC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MANHATTAN New York	FORT LEE New Jersey	WASHINGTON DC	FLUSHING New York	EDISON New Jersey	SAN DIEGO California	SEOUL Korea	HANGZHOU China
-----------------------	------------------------	------------------	----------------------	----------------------	-------------------------	----------------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세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풀타임 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 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문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목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2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 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